2021년 5월 18일 (4.7) 화요일

한Gua Información 한과정보

한과정보

코로나 19 현황

총확진	日확진	사망
241,528	159	7,893

기준환율 : ₩ 1,130.90 송금시 : ₩ 1,119.90 팔때 : Q 7.54 살때: Q 7.88

대사관 : 2382-4051~55 이메일 : embcor.gt@mofa.go.kr 대사관긴급전화 : 3368-9333 한인회 : 2445-6461

월요일 도착한다 던 러시아 백신, 또 지연

보건부가 17일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도착이 또 지연됐다.



Nancy Pezzarossi 보건부 차관은 "주 초 도착할 예정이었던 스푸트니크 V 백신 5만 도스가 배송상의 문제로 인해 목요일 도착한다"고 발표했다.

또 추가 도입 일정과 관련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세번째 백신 물량은 5월이 끝나기 전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차관은 "러시아 백신 생산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으나 운이 좋다면, 5월말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6페이지에서 계속>







그린 . 해피 마트

5월 10일 미국 일반 콘테이너 입하

4월 27일 미국 냉동 콘테이너 입하



이천쌀 및 각종 잡곡류
식품류
신선한 냉동식품류
가득~~

4월 20일 한국 일반 콘테이너 입하

각종 신선한 라면류, 각종 다양한 과자류
각종 음료 및 생수, 각종 화장품류
각종 식품류,각종 건강식품류(구기자즙.도라지즙외)

그린마트	해피마트	해피마트 2호점
5525-1200 2433-9651 1calle 32-51 Z.7 col. Toledo	4025-2266, 5893-8565 2334-7344, 2362-3475 Bulevar Liberacion 4-11 Z.9 Local #1 Plaza Asadis	12calle 3-40 Z.14 (비발디 아파트 바로 옆) 4025-2266,5525-1200 2221-7004

샤인코리아

한국 슈퍼 마켓

교민과 함께하며 신선한 제품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오뚜기 HITEJINRO paldo

3월 19일
한국 일반
컨테이너 입하





컴퓨터 책상용 의자, 게임용 의자, 책장, 책상
바른 자세 교정 서포트 체어-커블체어
트램폴링 실내용, 스텝퍼 운동기구, 휴대용 바둑판,바둑알,
놀이방 매트, 항균 4단 접이식 매트
전동 거품기, 대용량 13L 에어프라이어, 커피포트
경옥고, 덴마크 유산균, 락토핏 생유산균
크릴오일 1000mg, 루테인 지아잔틴, 인앤업 콜라겐
물건 운반용 수레, 김치 시즈닝, 라면 및 각종 음료 다량 입하
매일 흰우유, 연세 바나나, 딸기·멜론 우유
대리석 6인용 식탁, 원목 좌식탁자, 전자레인지 수납장

Tel : 2441-6325 / 2439-7176 / 주소 : 2 Calle 34-15 Zona 7
영업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7시 / 시내 전지역 배달 / 신용카드 사 용 가능

샤인 빵집 한국 베이커리

예약 전화: 2441-6325/2439-7176/5701-4323
한국 제과 제빵 종류는 뭐~든지 예약 전화 주세요.



고구마, 녹차, 모카, 과일생크림,
초코케익, 롤케익
아침 10시부터 갓구은 빵이 나옵니다.



과테말라 한글학교
Colegio Coreano en Guatemala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공고

과테말라 한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1년 가을학기(제1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유 치 반 ■■

1. 접수 기간 :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2. 신청 대상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모집 인원 : 15명 이내 선착순 마감
4. 반 편 성 : 유치부
5. 수업 교재 : 전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 (국립국어원 발행)
   * 교재 전권 무상 지급
   기타 온라인 수업 자료 (아이스크림, EBS 등)
6. 개학 일자 : 2021년 7월 17일 (온라인수업)

▶ 문의 및 신청 : e-mail 또는 전화
■김희경 교감 (yustinapark@hanmail.net, ☎5062-5752),
■이은덕 교장 (ccguate1234@hotmail.com, ☎5800-8211)





과테말라 한글학교장 이 은 덕

Summer School
Intensive course

achieve more
SAT
TOEFL
English

Starts June 7th



OXFORD

개인지도 및 입시준비 전문학원

모든 대학 시험 100% 온라인

SAT	English	TOEFL
SESSION 1: 9:00 AM - 11:00 AM	**SESSION 1:** 9:00 AM - 11:00 AM	**SESSION 1:** 9:00 AM - 11:00 AM
SESSION II: 12:00 PM - 2:00 PM	**SESSION II:** 12:00 PM - 2:00 PM	**SESSION II:** 12:00 PM - 2:00 PM
MONDAY - THURSDAY	MONDAY - THURSDAY	MONDAY - THURSDAY
Package ($17 per hour)	**Package** ($12 per hour)	**Package** ($15 per hour)
$136 per week	**$96** per week	**$120** per week

다양한 결제방식

모의고사 2회
(무료 제공)

강의시작
2021년 7월 7일

3182-7967 / 3180-4159

SAT & TOEFL 교육 17년 경력

100% 온라인 수업
수학 및 영어 수업
※ 교재비 별도



OXFORD LANGUAGE CENTER

100% ONLINE!

Diagonal 6, 14-73, zona 10

info@olcenglish.com

과테말라 / 중남미 주요뉴스

과테말라에 도입되는 백신의 물량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도입될 백신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주 중 스푸트니크 V 백신 추가 물량이 도입되고, 5월말 전까지 Covax를 통해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스푸트니크 V 백신도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Nancy Pezzarossi 차관은 설명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1,600만 도스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6억 1,450만 께짤의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지금까지 도입된 백신은 지난 5월 5일 도착한 5만 도스에 불과하다.

5월 17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삶은 277,380명이며,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2,522명에 불과해 접종자 수는 전체 인구의 1.6% 수준이다.

Soy502

코로나 신호등 적색지역 138→152개로 연속 증가

2주마다 지역별 코로나 상황을 분석해 발표하는 코로나 신호등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건부는 지난 1월 말 49개 였던 적색지역의 수가 5월에는 152개로 늘어났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코로나 신호등 시스템 발표는 올 해 들어 7번째 이다.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지역별 코로나 신호등에 따르면 적색지역은 152곳(14곳 증가), 주황색 지역은 113곳(35곳 감소), 노란색 지역은 75곳(21곳 증가)이다.

보건부는 전국 22개 주 중 적색지역이 많은 11개 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가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Suchitepéquez, San Marcos, Huehuetenango, Chimaltenango, Guatemala, Quetzaltenango, Escuintla, Sacatepéquez, Santa Rosa, Jalapa 및 Retalhuleu 이며, 확진자 비율이 높은 곳은 Suchitepéquez, Chimaltenango, Guatemala 및 Jalapa 이다.

Amelia Flores 보건부 장관은 "적색지역으로



과테 시내
배달개시
Q300 이상

과 테 골

- 도시락 전문 -

낮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모든메뉴배달

♣ 보쌈, 족발
♣ 김밥, 김치볶음밥
♣ 오리로스. 훈제
♣ 생삽겹
♣ 양념통닭
♣ 후라이드통닭



활 어 회
다량 입하

각종 찌개 ♣
김치 판매 ♣
다양한 점심메뉴 ♣
영양탕(매주 화요일) ♣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
출장 뷔폐/돌잔치/회식 ♣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칠칠오, 오삼영사-사일사오
46 calle 6-87 Z.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ÓPTICA CAMALEÓN
2361-4731 3761-9349
opticacamaleon@gmail.com

한인안경원

ÓPTICA CAMALEÓN

3Ave. 12-28 Z.9 / 주차장 완비
Waze로 OPTICA CAMALEON을 검색!
명가식당 정면으로 70m에 위치
월~토 (9:00~5:00) 일 (10:00~5:00)
※ 매주 화요일 쉽니다 ※

한국 생산 렌즈!! 한국 가격으로 공급!!
(호야, 바리락스, 자이스, 니콘 등)



50분 완성(검안포함) / 30분완성 (렌즈만 교체 - 검안 제외시) ※ 다양한 렌즈 보유 ※
한국인에 맞는 편안한 안경 다량 보유 / 토마토 어린이 안경 전모델 보유

마하다스 상가 바디프렌드 매장 내 안쪽 / 8calle 28-00 Z.11 Plaza Las Majadas #F / ☎ 삼공이구-삼육팔사

The nail 손.발 케어 및 내성발톱 관리 전문

장소 확장 이전

같은 상가 안쪽

TUCAN 문방구 & 안과 맞은편 위치

◈ 발톱 교정 관리 ◈



◈ 발톱 무좀 관리 ◈



표시된 곳은 부적절한 마스크 쓰기와 잦은 모임 등이 열리는 곳으로 시민들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진 곳"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

여행 목적지로 가장 많이 선택된 국가는?

과테말라 관광청(Inguat)은 올 해 1월부터 지난 5월 13일까지 중 해외여행 목적지로 가장 많이 선택된 해외 국가에 대해 발표했다.

과테말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목적지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국가는 엘살바도르, 미국, 온두라스, 멕시코 및 파나마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국한 엘살바도르는 올해에만 204,071명에게 선택을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은 180,552명이 방문한 가운데 3월부터 여행객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4월에는 미국으로의 백신접종 여행이 가능해지며, 한 달 동안 5만 2천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온두라스와 멕시코 및 파나마 외에도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벨리세, 콜롬비아 및 스페인으로의 여행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관광청은 밝혔다.

Soy502

믹스코 시장, 백신 기부 요청 위해 엘살바도르 방문

Neto Bran 믹스코시 시장이 코로나 백신을 요청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대통령 궁을 찾았지만 Nayib Bukele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지는 못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궁 앞에서 개인방송을 시작한 Neto Bran 믹스코시 시장은 "온두라스에 백신을 지원한 Nayib Bukele 대통령에게 과테말라에도 백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 궁 앞에 있다. 과테말라시를 비롯해 믹스코 시에서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있지만 접종 진행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Neto Bran 시장은 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만나지 못 한채 백신지원 요청을 담은 문서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RESTAURANTE HAN GUK GWAN



▶ "냉면 전문식당 그 외 다양한 메뉴 / 연중무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이사삼구-오구이칠, 사육이영-이칠오구 / 2a. calle 33-14 Z.7 calz. mateo flores

박상민 healthcare clinic

가정의학과 박 상 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Healthcare Clinic

신종 코로나 (COVID - 19)
rT PCR 검사



신종코로나
(COVID - 19)
rT PCR 검사
진 단 용



여행 / 해외 입국용
국문 / 영문
결과지 발급

▶전화 : 2439-8225, 4004-6267 ▶ 카드결제가능 ▶Waze/Google map/Uber : '박상민 클리닉' 검색

샬롬여행사
(SHALOM TOUR)
32 Ave 1-28 Z.7 Utatlan(농원 2층 위치)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 7,8월 아에로멕시코항공 주 3회 운항
과테 출발 : 월, 수, 금요일 운항
서울 출발 : 일, 수, 금요일 운항
- 엘에이 경유 매일 운항

과테 입국시 https://sre.gt/es/
입력후 QR 코드 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믹스코 시장의 돌발행동에 대해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원한다고) 백신을 무작정 들여올 수는 없다. 백신 수입을 위해서는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고, Neto Bran 시장은 "백신 구매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잘못 된 것이 사실이다. 시민을 위해 백신 접종 방법을 찾는 것은 시장의 의무"라고 지아마떼이 대통령을 공격했으며, "아직 백신을 기부받지도 못 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라고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

Nayib Bukele 대통령은 백신지원을 요청한 온두라스의 7개 지방정부에 34,000도스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일 17,000도스의 백신을 우선 지원했다.

Prensa Libre

17세 이전에 엄마가 된 과테말라 소녀들, 1분기에만 최소 7,900명

성과 건강을 위한 기구(OSAR)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동안에만 아기를 출산해 엄마가 된 과테말라 소녀들의 숫자가 최소 7,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AR은 2021년 1월부터 3월 사이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10세에서 17세의 미성년 임산부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출산 당시 10세가 된 소녀를 비롯해 13세 미만 소녀 113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17세에 엄마가 된 소녀들은 3,865명, 16세 엄마는 2,432명, 15세 엄마는 1,154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미성년자 엄마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Alta Verapaz주로 2,466명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Huehuetenango주 2,257명, Guatemala주 2,010명, Quiche주는 1,794명이었다.

미성년자 엄마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El Progreso주로 138명 이었고, Sacatepéquez주 282명, Zacapa주 312명 및 Retalhuleu주 366명 순이다.

과테말라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평균 3.81명이며, 81%의 여성이 성인이 된 후 아이를 출산한다고 OSAR은 밝혔다.

2018년 유엔이 밝힌 과테말라의 미성년 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십대 소녀의 임신은 당사자의 교육, 직장 및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족과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nsa Libre

체 리 쉬

☎ 5000-7503 한국관 옆 (구)다솜



신발-유아, 어린이 한국 신발



도자기 그릇



이불(침구류)



선물세트



여성복

꽃 꽃다발
꽃바구니
웨딩부케
축하.근조 화환
생화 케익
(당일배송)



여성 가죽 수제화 정리 (2켤레 Q500)

ShinWon

채용공고(과테말라)

1. 모집 부문 및 지원자격

구분	모집부문	인원	근무처	지원자격
경력	본공장 생산관리	0명	과테말라	▷ 스페인어로 업무 진행 가능한자 ▷ 해외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전형방법 및 제출 서류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이력서

3.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 : 김주광 차장(jkkim@sw.co.kr)

사 설

진영 · 지역 넘어, 시대정신 모아내는 5 · 18 되길 (한겨레신문)

5·18 민주화운동이 41주년을 맞았다. 정치권의 관심은 '불혹'의 해였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뜨겁다. 5월 들어 여야 할 것 없이 유력 정치인들이 이미 앞다퉈 광주를 찾았다. 코로나19 탓에 18일 공식 기념식은 2년째 제한된 인원으로 치러지지만, 참석자 규모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참석자 마음가짐의 온전함이다. 정치적 진영을 넘어 모두가 어느 해보다 숙연한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41년 전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려 지키려고 했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형식과 내용 모두 '우리들의 오월'이라는 주제에 모자람이 없는 기념식이 되었으면 한다.

공식 기념식 못지않게 관심을 모은 것이 17일 유족회 등이 주최한 추모제다. 이 자리에 정운천·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보수야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41년 전 광주에서 시민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신군부에 뿌리를 둔 정당이다. 두 의원이 5월 단체들의 숙원이었던 5·18 공법단체 설립과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도 유족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통과에 힘을 쓴 것에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하나, 피해자들이 손을 내민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다. 국민의힘이 유족회의 뜻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5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40년이 넘도록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적 진영과 지역의 벽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했을뿐더러, 고귀한 희생의 가치마저 조롱과 폄훼의 대상이 돼왔다. 심지어 거대 보수 정당과 언론까지 나서 시민군 다수가 북한 특수군이었다는 파렴치한 왜곡을 일삼는 것도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지난해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진 뒤 이런 행위가 잦아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더 중시해야 할 것은 보수 진영이 광주와 5·18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된 오늘의 현실이다.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우리 국민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41년 전 경험을 우리가 깊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이런 모습을 본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존재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2019년 홍콩에 이어 올해 미얀마에서도 5·18은 저항적 민주화운동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누구보다 광주를 찾는 정치인들이 잘 알 거라 본다.

5·18 민주화운동은 권력을 찬탈한 군부에 대한 저항을 넘어 모든 억압에 맞선 자율적인 연대 정신의 발현이었다. 여기에 어설프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투영하려는 시도는 그 이름이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다른 뭐가 됐든 5·18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국가가 5·18의 완성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 처벌하고, 실종자를 끝까지 찾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가 5·18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하고자 한다면 국민을 극한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데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종부세 세금폭탄론' 허구성 드러낸 '하위 50% 세액 23만원'(경향신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절반이 연간 1인당 부담하는 세액은 23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부동산 부자들인 상위 10%가 세 부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야당과 보수 언론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산층 종부세 폭탄론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부동산정책 보완작업 중인 여당과 정부는 세금 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국세청의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하위 50%)은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평균 23만1920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를 두고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액은 총 1조8148억원이고, 1인당 세액 평균은 273만원으로 전년보다 89만원 늘었다. 하지만 납세액 순으로 배열할 때 중간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과세 부담이 최상위 부동산 부자들에게로 집중됐다는 의미다. 실제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세액은 3만7872원, 하위 20%까지 확대하더라도 8만1288원을 부담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반면 상위 1%는 전체 세액의 43.2%, 상위 10%로 확대하면 72.9%를 차지한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손질하고 있다.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심이 이반했다고 판단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할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백분위 자료에서 보듯, 종부세 완화는 결국 고가·다주택자인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종부세 완화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집값의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책 신뢰성 훼손은 물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와 공동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특위가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보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추구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 장기보유자의 대출 편의와 세 부담 경감을 줄이는 세밀한 보완책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강병원 최고위원의 말대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세제 개편이어서는 안 된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라 이 프

정수리 똥 냄새를 만드는 나쁜 습관

머리에서 풍기는 쿰쿰한 냄새, 사소한 내 습관 때문이다. 정수리 냄새의 원인을 알아보자.

피지 과다 분비

정수리에 '똥 냄새'를 만드는 주범은 바로 두피의 피지 과다 분비다. 두피는 넓은 면적으로 많은 피지선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과 비교해 2배가량 더 많다. 과다 분비된 피지가 노폐물과 땀을 만나 산화되면서 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직후에 열이 오르면 피지 분비가 활발해짐으로 올바른 샴푸 방법과 맞춤 샴푸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기름 과다 분비

샴푸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유독 머리카락에 기름이 진다고? 그렇다면 정수리에서 냄새가 날 확률이 아주 높다. 특히 남성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양의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생산되면, 두피를 포함한 피부 분비선 전체에서 기름이 배출된다. 이때 분비되는 기름을 제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 쿰쿰한 냄새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머리 감은 후 방치 & 수건으로 덮기

머리를 감은 뒤에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는 습관 또한 정수리 똥 냄새를 만들게 된다. 이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습관으로 대충 말린다거나 아예 말리지 않으면 세균 번식이 쉬워진다. 두피의 세균으로 인해 악취를 만들게 되니 번거롭더라도 머리를 잘 말리도록 하자.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습관인 수건으로 머리카락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열 상승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얼굴에서 열이 오르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두피가 자극되어 열이 자주 오르면 두피에 지루성 두피염을 일으킨다. 지루성 두피염 앞서 언급한 피지, 기름은 물론, 악취, 탈모까지 불러일으킴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이며, 두피열을 내려주는 헤어 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피부가 좋아지는 식물 효과

이제 공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건강과 피부를 위해 식물을 들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플랜테리어'에 대하여.

1 식물의 특권, 공기 정화

깨끗한 공기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이 커지는 시기, '미세먼지가 심하면 밖에 안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실내가 외부보다 더 오염돼 있으며 오염 물질이 폐까지 도달할 확률은 실외보다 실내가 1000배 이상 높다고 한다. 실내를 떠다니는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가구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등이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 하지만 공간에 식물을 들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식물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실내 오염 물질을 7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미국항공우주국

바이어스작업

♣ BIAS (랍빠감, 니트 / 우븐) 다대 및 바이어스 요꼬 커팅
♣ 스파게티 작업
♣ 랍빠 및 애리가다, 굿찌가다 후다 등 "패턴포머 전문제작"
♣ 각종 ATTACHIMENT

랍빠전문

니트 및 우븐 핀탁랍빠

품질 보증, 납기 엄수

담당 : 박상봉 5526-0630

Fabrica empresarial montaña
km 18.5 carretera san juan sac
Aldea naranjito Z.6 de mixco
A-41-68 bodega no.2

(NASA)에서 연구한 결과로도 입증할 수 있다. 밀폐된 우주선에서 식물이 주는 영향을 실험했는데, 식물을 공간에 들이는 것만으로도 유해 물질이 사라지고 공기가 정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레카야자

이레카야자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로, 미우주항공국(NASA)에서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로 선발하기도 했는데요! 음이온과 수분을 내뿜어 실내 환경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틸란드시아

자일렌 제거량이 '최상' 등급인 틸란드시아는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우수한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자일렌, 미세먼지 등은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이기도 해서 틸란드시아로 새집증후군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스투키

스투키는 밤에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침실에 두기에 좋은 식물이죠^^ 물 관리가 쉬워서 실내에서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2 집콕 속 소확행

집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플랜테리어' 다. 플랜트와 인테리어를 조합한 신조어로, 공간을 식물로 꾸미는 것을 뜻한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싱그러워지는 야자를 거실에 두거나, 삐쭉빼쭉 귀여운 생김새의 선인장을 서재 구석구석 배치하는 것 모두 플랜테리어다. 이미 마니아 사이에서 플랜테리어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는데, 이들이 플랜테리어에 이토록 열심인 건 단지 인테리어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플랜테리어의 매력은 공기 정화 효과다.



3 피부에도 통하는 식물의 힘

플랜테리어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다.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식물을 키우는 것과 피부의 상관관계가 궁금해져 피부과 전문의를 찾았다. 미파문피부과의 문득곤 원장은 "피부는 주변의 습도와 온도에 매우 예민합니다. 즉 식물로 실내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식물은 공기를 정화해 피부에 자극이 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가습기 역할을 해 피부 건조를 예방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즉 식물만 잘 들여도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다.

4 어떤 식물을 들일까?

이제 어떤 식물을 들일지 고민해보자. 가장 먼저 소개할 식물은 아레카야자다. 1989년 나사에서 발표한 실내 공기 정화 식물 1위를 차지한 식물이자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고 유해 휘발성 화학 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는 등의 기능을 두루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다. 또 전자파까지 차단해 요즘처럼 재택근무를 하는 시기에 필요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뛰어난 보스턴고사리 역시 추천할 만한 식물이다. 보스턴고사리는 건조한 기후에 강하고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다. 그 외에도 밤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공기를 정화하는 선인장, 잎이 넓고 두꺼워 실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 산세비에리아, 미세먼지와 새집증후군의 독성을 흡수하는 인도고무나무 역시 공기 정화 식물로 알려져있다.

5 플랜테리어를 위한 마지막 점검

평소 알레르기질환을 앓거나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면 식물을 들이기 전 몇 가지만 주의할 것. 알레르기 검사(MAST)를 받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미리 파악하자. 의외로 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 또 식물에 흔하게 존재하는 곰팡이 알테나리아는 공기에 수시로 떠돌아다니며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것 역시 주의하자.

크루즈 여행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8가지 행동

2020년 2월, 바이러스가 침투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격리되었으며, 선원들은 수개월 동안 작은 선실 속에 갇혀있어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과연 크루즈를 다시 타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젯트 여행사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관광청 승인 여행사

INGUAT

◇항공◇

◆ 아에로멕시코 항공
5월, 6월 - 주 2회 운항
- 과테출발 : 수요일.금요일
- 인천출발 : 일요일.금요일
7월, 8월 - 주 3회 운항
- 과테출발 : 월,수,금
- 인천출발 : 일,수,금

※ 백신 접종 L.A ※
(예약.픽업.숙박.항공안내)

◇관광◇

(5월 가정의 달)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안내
(1박2일 / 2인실 기준)

* 1박2일 - 호텔2인실 기준
* 띠깔 - 당일 $290 / 1박 2일 $390
* 몬테리코 식사포함 - Oceana hotel Resort
  주중 $260 / 금.토 주말 $295
* 아띠뜰란 호숫가 식사포함
  Potra hotel del Lago $ 175
* 리오둘세 - Mansion del Rio $150
  Amatigue Bay $145
* 산호세 식사포함
  - Soleil Pacifico 주중$170 /금.토주말$240



13calle. 3-40 Local 41. 2do. Nivel. Edificio Atlantis Zona 10
E-mail : taeshim62@hotmail.com jetexpressgua@yahoo.com
Tel : (502) 2385-4646 직통전화 : (502) 2383-4324 HP : (502) 5867-5867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명가 名家



"숯불구이 개시"



한방오리백숙, 돼지국밥,
쟁반국수, 콩국수, 치즈까스,
맛있고 저렴한 스시롤
활어회, 복사시미
숙주와 차돌, 복찜, 아구찜,
염소탕, 삼합, 숯불돼지갈비

소머리곰탕, 곱창구이
양념돼지껍데기
간장게장.새우장 주문
- 현지인 회식 -
삼겹살 무한리필 Q80
다양한 메뉴/점심 메뉴
회사 도시락 배달/ 일반배달

연중무휴 / 평일 9:00, 일요일 6:30-7:30 / 이이일구-구육육육, 이이삼사-육팔육삼, 오칠영삼-일칠삼사

2020년 4월, 질병관리본부는 항행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당해 11월이 되어서야 조건부 항해 명령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명령은 미국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크루즈 선박에 유효했으며, 미국 내에서 항해하려 하는 선박들은 SARS-CoV-2 감염 검사를 위한 실험실 및 승무원의 COVID-19 위험을 방지, 완화 및 대응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갖추어야만 했답니다. 이처럼 크루즈 여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크루즈에 탑승했을 때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역시 엄격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크루즈 여행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 8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우리에게 마스크는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조차 없는데요. CDC의 명령에 따르면, 미국 혹은 국외로 항해하는 해상 수송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과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트레블의 소유주 테리가 헤인즈 박사에 의하면, 크루즈에 탑승해있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공공 행사 및 공공공간에서만큼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해요.

즉각적인 객실 입장

코로나 19가 퍼지기 이전에는 크루즈에 탑승한 후 곧바로 객실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크루즈에 탑승한 즉시 객실에 입장할 수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헤인즈 박사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크루즈 운행 기업들이 객실 청소 및 위생 상황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건강 진단 검사 없이 탑승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에는 크루즈에 오르기 전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몇몇 정보만을 제공하면 되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기간과 그 이후에는 건강 및 안전 점검 전화를 11번까지는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승객들은 건강과 관련된 설문 조사지를 자세히 작성해야 하고, 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크루즈 라인에서 코로나 19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만일 이들의 건강 상태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크루즈에 탑승하지 못한다고 해요. 헤언즈 박사는 이와 관련해 탑승 과정을 더 편리하고 덜 붐비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체크인 혹은 체크아웃 과정을 VR을 활용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없이 탑승

백신 접종의 의무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백신 접종의 의무화가 모든 크루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몇몇 노선의 경우, 승객과 승무원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선사가 크루즈, 알래스카 드림 크루즈, 윈드스타, 로열 캐리비안, 노르웨이 선과 같은 일부 거물급 라인들도 백신 접종 요건을 발표했다고 해요. 헤인즈 박사는 순항선에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항해 일정 내에 접종이 필요한 목적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으며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크루즈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답니다.

BAR 및 레스토랑에 방문

현재, 육지에서도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크루즈 내에서 BAR 및 레스토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닌데요. 여름 운행 예정 크루즈들 가운데 대부분은 60~70%의 인원만으로 운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특히 실내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식당, 극장, Bar,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질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뷔페 식사

아람 정육점
CARNICERIA ARAM
신선한 고기로 맛있는 식탁을 꾸미세요!

로데오 3호점안
아람정육점
분점 오픈
벌집 삼겹살 개시!!
각종김치, 각종 반찬, 족발
로데오 통합 배달
2호점 : 2221-5364
영업 시간 월~토 / 8:00~7:00
주 일 / 8:00~7:00
전화 : 사오일사- 영팔영이 / 32 AVE. 1-40 Z. 7 UTATLAN 1
위치 : 로데오 2호점 옆 ※ 머릿고기 주문 및 고기 재워 드립니다.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크루즈 여행에서의 뷔페가 크게 위생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크루즈에 탑승한 승객들은 잠재적인 세균 확산을 줄이기 위해 뷔페 식사를 즐길 수 없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회사들의 경우, 뷔페를 완전히 없앨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몇몇 기업들은 여전히 뷔페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식사 시간에 제한을 둘 계획이라고 하므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식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유 장비의 사용

크루즈 내의 공유 장비는 예전처럼 널리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크루즈 여행 중 여러 사람의 손을 타는 물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크루즈 회사들에 따르면 승객들은 공유 장비의 요청 시에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들은 체육관 매트 혹은 테니스 라켓을 요청하기에 앞서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악수

우리는 이제 크루즈 선장 혹은 승무원들과 악수를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장 혹은 승무원들을 만나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요. 여행 저널리스트에이비드 예스켈은 윈드스타 크루즈가 악수 대신 다른 방안을 생각해 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2021년 6월까지 모든 출항을 중단한 이 크루즈 라인에서는 승무원들이 악수 대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W를 만들어 손 신호로 인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요.

이번에는 크루즈 여행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크루즈 산업 역시 다른 산업만큼이나 코로나19로 역풍을 맞게 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만큼 크루즈에서도 규칙을 잘 지킨다면, 훨씬 더 안전한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겠지요.



신성통상 니카라구아 소속 이스트모 법인
직원 채용 공지

***** 채 용 부 문 *****

- 공장 생산관리유경험직원 1명
(TARGET , GAP ORDER 생산 관리)
*** 필수조건 : 스페인어 의사소통 가능자**
*** 나이 : 20세-40세 (생산 관리 유 경험자)**

* 입사시점 : 2021.5월
* 처우 : 급료 외 기숙사 제공 (가족 동반시 주택보조 지원) 차량 유류비, 통신비 등
* 연락처 : 00-505-5786-0790 / yanghj@ssts.co.kr

정 치 · 경 제

광주에 고개 숙인 TK출신 김 총리

전두환 겨냥 "용서 구하라"
"5.18 영령 앞 사죄..완전한 진실 규명 때까지 포기 않을 것"
모두발언 중 연단에서 내려와 유족 향해 허리 숙여 사죄 뜻
국무회의서는 "대구시민인 제가 총리돼 광주 찾아 뜻 깊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신군부 세력을 겨냥해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술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음에도 사과하고 있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어 "터무니없는 왜곡과 날조로 5·18 영령과 유가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5·18 민주화운동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월 광주'를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이다.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광주는 희망"이라며 "비단 미얀마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부정과 불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들이 광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하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대목에서 잠시 연단에서 내려와 기념식에 참석한 유족 등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의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리는 이어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다. 진실의 고백은 화해와 용서의 시작"이라며 "전국에 계신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린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시간이 많지 않다. 오랜 세월 묶여있는 그 한을 풀어 달라"며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 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다"며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하다"며 지난 2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당시 병상을 내준 광주 의료진의 지원을 언

한 진 정 밀
Han Jin Industrial
Tel : 5401-9261
7a calle 26-35 Z.4 de mixco boulevard bosques de san nicolas



◆ 모든 상표 전기종 신품 미싱 판매
◆ 봉제 모든 미싱 부속 및 소모품 판매
◆ 전사 프린터 판매
◇ 전화주시면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중고기계 구매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작동이 안돼
기계실이나 창고에 방치
되어 있는 기계들 처분
하실 분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반 / 밀링 / 용접 / 미싱개조 / 몰드제작

급,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며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기념식에 앞서 광주시청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지난해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을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앞장서서 보여주신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때 대구시민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어 광주를 찾아뵙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확 달라진 野, 광주로 광주로

"헌법에 5·18 넣자" 주장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민의힘이 '호남 구애'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호남 민심이 정권교체에도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서진(西進) 정책'이 한층 탄력받는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이 5·18 관련 망언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시절과도 크게 대비된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5·18 41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이었던 지난 7일 광주 방문 이후 11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것이다.

김 대표 대행은 기념식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박자에 맞춰 힘차게 팔을 흔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거에서도 컷오프 통과자의 첫 합동연설회를 광주에서 열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호남 민심을 고려해 여러 의미를 담은 일정"이라고 귀띔했다.

보수정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성일종 비상대책위원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의 5·18 추모제에 초청받은 것도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유족의 발언이 나왔다.

분위기가 고무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5·18 개헌론'의 필요성까지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된다.

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정신은) 이미 당 정강·정책에 다 들어가 있다.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그런 부분이 다 토론이 될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 저는 찬성


향이 숯불갈비
배달가능 [로데오 통합배달]

과테에서 맛보는 신선한 생막창

* 점심특선 *
양푼이 비빔밥
돌솥 비빔밥, 알밥,
얼큰 뚝배기 만두,
뼈다귀 해장국
쫄면, 비빔국수
황태 콩나물 해장국
* 예약 메뉴 *
굴보쌈(2시간 전)
닭도리탕(1시간전)
* 특별 메뉴 *
소꼬리찜(보통,매운)
갈비찜(보통,매운)
Calz.Mateo Flores 33-40 Z.7 / 이이삼삼-칠이일영, 사칠사영-사칠일오, 사오칠육-오칠팔육
"결혼피로연, 돌잔치, 회식, 각종모임 등 단체환영" 안전한 콜서비스 대리운전가능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초선의 김은혜 의원도 전날 "5·18 정신 계승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언젠가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오섭 "국민의힘, 5·18 진정성 의문 '망언 3인방'과 결별해야"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5·18 추모제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인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 정당 활동을 한다면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 의원과 성 의원 등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을) 5·18 유족께서 초청해 참석한 경우는 어제가 처음이었다"며 "국민의힘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유족회에서 초청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5·18단체들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하고, 특별법 통과와 공법단체 승격 등에 도움을 줬다. 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5·18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조 의원은 두 의원이 "추모제 현장 마지막 순간에 일어서서 손을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제창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5·18 망언'을 했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당 소속으로 돼 있다. 또 보수 쪽 유튜버, 태극기부대 등이 5·18을 아직도 북한군의 침투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개적 결별 선언도 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등 5·18역사 바로세우기법에 대한 협조도 국민의힘에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보다 진정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전 전 대통령처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를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文대통령, 내일 방미 "21일 정상회담, 백신협력 등 다양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19~22일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백신협력과 북핵문제 등 두 나라간 여러 현안을 놓고 회담을 갖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엔 백악관을 방문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오후엔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회담 직후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 한 뒤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방미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애틀란타로 이동해 현지에 진출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서울에는 다음날인 23일 밤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 수석은 "방미와 관련된 상세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자 문 대통령에겐 취임 후 10번째 한미정상회담이다.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갖는 이번 회담에선 백신협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남은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이 대상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신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갈지는 조율 중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이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을 했고 북한에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난번 발표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치하는 경우, 상응조치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 등 발표가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단히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으로 보는데, 정상회담 내지는 성명에 들어갈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선 이 시간 현재도 협의 중이다"며 "미리 앞서 나가서 협상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앞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매주화요일 휴무 배달 (오전11시~오후8시)

중국집



밥 류▶▶▶
볶음밥
짜장밥
짬뽕밥
잡채밥
야끼밥
잡탕밥
고추밥
중화비빔밥
마파두부밥
삼선볶음밥
유산슬밥
고기덮밥



요리류▶▶▶
탕수육
칠리탕수육
깐풍기·육
라조기·육
양장피
팔보채
유산슬
잡 탕
누릉지탕
칠리새우
깐풍새우
깐쇼새우
고추잡채
중국집잡채
짬뽕홍합탕

면 류 ▶▶▶
짜장면
간짜장
불짜장
쟁반짜장
삼선짜장
삼선간짜장
삼선쟁반짜장
유니짜장
고추짜장
짬뽕
불짬뽕
삼선짬뽕
차돌박이짬뽕
우동
야끼우동
삼선우동
울면
기스면
콩국수

술상셋트 400

탕수육 칠리탕수육	중 택1
+	
고추잡채 중국집잡채 누릉지탕	중 택1
+	
깐풍기(육) 라조기(육)	중 택1

술상셋트 600

탕수육 칠리탕수육	중 택1
+	
깐풍새우 깐쇼새우 칠리새우	중 택1
+	
양장피 유산슬 짬뽕홍합탕	중 택1



쿠폰제실시

인스타그램 junggukjip

전화 2212-5639 / 2439-3508 36ave. 1-59 zona 7 colonia toledo

청와대는 또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 일정 등과 관련한 동행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기업간 여러 논의들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 때 말씀드리는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 있는 백신 기업들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백신 기업들이 한국 기업, 외국 기업들과 여러 투자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 보고"

김의겸 의원, SNS 통해 주장.. 전

청와대 민정 관계자 "박형철 통해 보고.. 근거는 사모펀드"

지난 2019년 8월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과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나선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역심'까지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윤 총장의 타깃이 '조국'(사모펀드)에만 국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전직 관계자 "박형철 비서관 통해 보고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라인에 근무했던 전직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의 근거는 사모펀드였다"라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석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윤 총장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조국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블루코어벨류업1호) 투자를 근거로 조국 장관을 수사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조국 장관의 것이라는 (윤 총장의) 허위보고에 청와대 검증라인이 부글부글했다"라며 "(윤 총장의 보고 이후에) 청와대 검증라인이 '사모펀드는 조국의 것이 아니다'는 보고를 올렸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형철 전 비서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그러한 보고를 한 적도 없고, 검찰로부터 (사모펀드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저는 휴가중이었다"라고 부인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윤 총장의 보고는 검찰 안에서 윤 총장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유철(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라인'이 보고한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부장과 김유철 정책관은 고교(현대고)와 대학(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사모펀드건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의 출발점이었다. 당시 언론들도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에 불법투자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다만 법원(1심)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언급한 전직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 점(사모펀드는 조국의 것이 아니다)이 확인되자 검찰은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로 확전했다"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자 검찰이 부인과 아들·딸의 입시비로 수사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노형욱 "사업성 좋으면 민간 재건축도 좋지만 안전장치 필요"

첫 대외일정으로 공급 유관기관 소집해 간담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을 소집해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굳이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민간 재건축의 경우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현장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천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8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를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은 무시하고 공공 주도로 공급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이 자유롭게 주택공급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제시했지만 토지주 등은 공공 주도방식과 민간 추진 방식 등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 은평 수색14구역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은평 증산4구역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노 장관은 "2·4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확보 물량에 안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로 제안하고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LH 등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Han Al International School

Clases 100% Ingles y Online

15Calle 2-64 Zona 10 (구 EuroAcademy)



확장이전

15 Calle 2-64 Zona 10

(구 EuroAcademy 자리)

www.hanal.edu.gt / tel:2230-0855

Summer (SAT반) 선착순 14명

SAT	CRITICAL READING	2시간
	WRITING	2시간
	MATH	2시간

- 오전 8:30 ~ 오후 3:00 / 월,화,수,목,금
- 6월 7일 ~ 7월 16일 (6주간) 대면수업 (문교부 허가)
- 매주 금요일 PRACTICE TEST
- 상담 전화 : 5482-7234

구 Han Al 부지 판매 Z.14 (8,373V²) 문의 : 5555-2358

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제넥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현재 임상 중인 'GX-19N' 생산..245억원 규모 계약 맺어

한미약품은 제넥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X-19N'의 공정개발 및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245억원이다.

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에서 제넥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상용화 약물 시생산 등을 맡는다. 향후 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도 수행키로 했다.

현재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DNA)를 주입,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의 DNA 백신 'GX-19N'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2a상 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2·3상을 진행하고자 현지 제약사 칼베 파르마와 협력하고 있다. 제넥신과 칼베 파르마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에 임상 2·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

성영철 제넥신 대표는 "한미약품과 함께 DNA 백신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DNA 백신 상업화 생산의 성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굳건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이번 협력은 한국의 유전자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日경제, 긴급사태 여파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일본 경제가 3분기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 여파로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내각부는 18일 올해 1·4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이 지난해 4·4분기 대비 1.3%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추세가 향후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 연율 환산치로는 마이너스(-) 5.1%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1·4분기 -0.5%, 2·4분기 -8.1%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그해 3·3분기 5.4%, 4·4분기 2.8%로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1·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3분기 만에 회복세가 주춤해졌다.

올 1월 일본의 두 번째 긴급사태가 발령되면서, 개인의 외출 자제, 재택근무, 음식점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개인 소비는 전기 대비 1.4%나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 4월 25일을 기점으로 도쿄, 오사카 등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재발령 됐으며, 최근에는 총 9개 광역지역에서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2·4분기 경기 상황 역시,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와 공공투자도 각각 1.4%, 1.1% 줄었다. 수출은 지난 4·4분기 11.7%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 1·4분기에는 2.3%증가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본 완성차 업계의 조업에도 악영향을 준 것이다.

일본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실질 GDP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2년 연속이며, 감소폭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을 넘어 태평양전쟁 이후 최악의 침체였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접종완료자 100만명 돌파 70~74세 사전예약률 60.9%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18일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 103만964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374만5934명이다.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전날까지 총 429만6412명이 예약을 마쳤다.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시작되는 70~74세와 65~69세는 각각 129만7474명(예약률 60.9%), 158만5120명(예약률 52.7%)이 사전예약을 완료했다.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0~64세는 141만3818명(예약률 35.6%)이 예약을 완료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계속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해서 예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http://ncvr.kdca.go.kr)을 통해 24시간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5.2%)이 높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진 인터내셔날






▶미싱 부속 판매 ▶각종 소모품 판매 ▶ 각종 바늘 판매

▶패턴지, 마카지 판매 ▶패턴포마 아크릴

미싱부속 및 모든 소모품 전 지역 배달

36Ave "A" 3-46 Zona7 El Rodeo 오영오육-칠오사일 (whatsapp)

E-mail : hanjinter1206@hotmail.com , hanjinguate77@gmail.com

이사삼사-영칠사삼, 이사삼사-일팔오구, 오이영팔-영삼이이, 삼영삼육-이삼칠영



MISO

미 소 (ZONA 7 점)



순대, 해물, 숯불전문 / "소문난 내장탕 곱창전골"

최상급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순대국, 김치순대, 순대곱창볶음, 내장탕

쭈꾸미 연포탕, 쭈꾸미 찜, 쭈꾸미 볶음

매운오리불고기, 냉채족발, 돼지머리수육



전화번호 : 4150-3788 (박상민 클리닉 맞은편 위치)

C.C. Mateo Xpress, 36 Ave 1-74 local 15 Zona 7 / 매주 화요일 쉽니다

사 회

99명 모두가 목놓아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엄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모두 힘껏 치켜올린 주먹을 흔들며 한목소리로 제창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이 따라부르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정부 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99명으로 참석자가 제한된 가운데 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모두 '우리들의 오월'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에 파란 배지를 달았다.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1·2막, 기념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45분간 진행됐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1980년 신군부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경과보고를 갖고 "오늘 기념식은 참다운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다"며 "5·18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권을 위한 법적 장치들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행사는 5·18 당시 희생자로 올해 최초로 사진이 발견된 고(故) 전재수군과 투사회보의 필경사로 활약한 박용준 열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과 함께 '바위섬' 추모연주로 시작됐다.

또 '기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된 5·18 당시의 일기 등을 활용한 독백형식의 공연이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 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많다"며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의 대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장식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모든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제창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이 손을 흔들지 않거나 따라부르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기념식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먼 발치서 손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합창으로 불리며 일부 인사들이 따라부르지 않아 시민들의 많은 빈축를 산 바 있다.

유족들을 모든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껏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유족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야당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이제 전두환 사과와 함께 5·18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장손, '전두환 그룹' 주인 등극 3대 세습 본격화

천 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3대 장손자에게 본격 세습되기 시작한 단서가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일가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의 장손인 우석(34)씨가 아버지인 전재국 씨 소유 출판사인 음악세계에 등기이사로 참여하며 경영 전면에 등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회사로 운영되던 음악세계는 2019년 10월 주식회사로 전환됐고, 우석 씨는 그 직후 경영에 참여했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주)음악세계는 전재국 씨와 장녀 수현 씨, 장남 우석 씨가 100%지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석 씨는 그 중 절반 가량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였다.

전재국 씨가 운영해 온 음악세계는 지난 2019년 10월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전두환의 장손인 전우석 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음악세계는 전재국 씨와 그의 장녀 전수현 씨, 장남 전우석 씨가 100%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다. 우석 씨는 그 중 절반 가량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전재국 씨가 운영해 온 음악세계는 지난 2019년 10월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전두환의 장손인 전우석 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음악세계는 전재국 씨와 그의 장녀 전수현 씨, 장남 전우석 씨가 100%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다. 우석 씨는 그 중 절반 가량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재산 국가헌납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

전두환은 지난 1997년 광주학살과 '5공 비리'에 대한 책임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이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5공 내내 대기업에서 90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뒤, 그 중 2085억 원을 친인척 등을 동원해 차명채권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두환이 내야 할 추징금은 97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전재산 국가 헌납을 공언한 바 있다. 5공 비리가 터져 나오던 1988년엔 전두환 본인이, 2013년 9월엔 아들 전재국 씨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했다. 하지만 두번 째 대국민 약속이 나온 지 8년이 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모님(전두환 부부)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 전재국 / 전두환 장남 (2013.09.10)

전두환이 대통령 재임 중 받아 챙긴 불법자금은 아들 3형제, 특히 큰 아들 전재국 씨에게 흘러갔다는 게 정설이다. 전재국 씨는 넘겨받은 재산을 종잣돈 삼아 수많은 기업을 세우며 사업가로 성장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로 군림했던 시공사가 대표적인 케이스. 전재국 씨가 설립, 운영해 온 기업들은 이미 여러 번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기업이라는 의심 때문이었다.

전재국이 운영하는 이른바 '전두환 그룹'은 도서출판 시공사를 정점으로, 인쇄회사인 북플러스와 유통회사 리브로, 뫼비우스와 음악세계 같은 출판사, 스타일까사나 지식채널, 파프리카미디어 같은 문화 기업, 맥스코프 등의 부동산 회사로 수직계열화 돼 운영됐다. 전재국 씨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시공사와 북플러스 등을 통해 소위 '전두환 그룹'을 지배했다.

지난 2018년 '전두환 그룹'의 지주회사격이던 시공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뒤에도 이런 식의 지배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재국 씨가 70% 가까운 지분을 가진 북플러스가 시공사의 자리를 대체하며 지배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던 것이다.

시공사 말단 기업 '음악세계', 3대 세습 시동 건 뒤 사업 다각화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는 전두환 일가의 재산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2년 전 전두환 일가 재산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두환 그룹'의 말단 계열사에 불과했던 음악세계라는 출판사에 전재국의 아들, 즉 전두환의 장손인 우석 씨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동안 전재국 씨가 자신의 대표 사업체 중 하나인 리브로에 장녀 수현 씨를 사외이사를 올린 적은 있지만, 장남인 우석 씨를 소위 '전두환 그룹'의 경영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의 장손자인 우석 씨가 음악세계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 전두환 일가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나르는 돼지'를 설립한 사실을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순풍식당

포장 및 배달 합니다.
(로데오 통합 배달)

위치 : 아람정육점, 농원식품 옆
32ave 1-34 Z.7 utatlan 1
5577-7686, 2508-5635

순대국밥전문	곱창전골
순대곱창볶음	제육볶음
순대 떡볶음	김치찌개
야채 불고기	된장찌개
북어 콩나물	육 계 장
소머리 국밥	설 렁 탕
해물 순두부	삼 겹 살
오삼 불고기	만 두 국
쭈꾸미 볶음	술 국
쭈꾸미 해물탕	순 대
돼지머리 주문	찐 만 두
머리고기	홍 어 회

우석 씨가 음악세계의 등기이사가 되던 시기를 전후해 소규모 출판사에 불과했던 음악세계가 빠르게 사업영역을 넓힌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세계의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전국단위 피아노 콩쿠르와 연천 DMZ국제음악제를 열고, 영유아 피아노 교육사업인 '네모 피아노' 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 공연 기획, 음악 장비 렌탈, 저작권 사업도 진행중이다.

우석 씨의 등기이사 선임 시점에 주식회사로 변신한 음악세계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도 보폭을 넓힌 점도 눈길을 끈다. 음악세계는 전우석 씨가 등기이사가 되던 바로 그 날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주택 건설 사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향후 (주)음악세계가 전두환 일가가 주력해 온 출판, 문화, 부동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멀티 컴퍼니' 이자 '리딩 컴퍼니'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단서다.

전두환 그룹간 내부거래, 전재국-전우석 간 증여세 회피 의심

그렇다면 왜 전두환 일가는 음악세계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거치며 우석 씨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일까. 뉴스타파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공시내역을 찾아봤고, 전재국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북플러스의 감사보고서에서 의미있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두환 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북플러스가 음악세계의 매출에 기여함은 물론, 소규모 출판사에 불과한 음악세계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020년 북플러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플러스는 2019년 한 해에만 상품매입으로 2억 6천만 원, 임대료로 6억 4천만 원 등 총 9억여 원을 '음악세계 등' 에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북플러스가 음악세계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음악세계 파주사옥'이다. 소유주는 전재국 개인. 따라서 이 건물에 입주한 기업이 내는 임대료는 건물주인 전재국 씨가 받아가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런데 건물 소유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음악세계가 임대료를 받아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시 전재국 씨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아들이 대주주인 회사에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증여세 회피를 위한 편법 상속이 벌어진 건 아닌지 의심된다.

이유야 어찌됐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음악세계가 전두환그룹의 지주회사격이던 북플러스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면서 '전두환 그룹' 의 최정점에 섰다는 점이다.

전우석, (주)음악세계에 출근...SNS 통해 확인

전두환에게서 물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으로 승승장구한 전재국, 그리고 아버지인 전재국 씨에게 가업을 통째로 넘겨받고 있는 전우석. 올해 34세인 우석 씨가 운영하는 SNS에는 그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이 여럿 공개돼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공개한 고기식당 프랜차이즈 '나르는 돼지' 본점 앞에서 찍은 사진, 2019년 우석 씨가 서울 이태원에 차렸던 주점 '핑크판다' 에서 찍은 사진등이다. '핑크판다'에서 찍은 사진에선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도 확인됐다.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은 전우석 씨가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음악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음악세계가 주최한 '피아노 콩쿠르 컨퍼런스(2017년 11월)', '네모 피아노 사업설명회(2018년 7월)'에 참여한 사진 외에도 '음악세계 파주사옥 출근(2019년 5월)', '음세인의 밤(2020년 4월)'등의 제목이 붙은 사진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음악세계 파주사옥을 찾아가 전두환 재산의 3대 세습 배경과 남은 추징금 납부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재국 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전우석 씨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음악세계 이사 선임 배경 등을 물었지만, 역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22일부터 백신 대량접종 본격화.."열나면 연기"

"암·당뇨·고혈압 괜찮아" 75세 이상 204만명 대상 백신수급 불안 해소로 화이자 22일, 아스트라제네카 27일부터

이번 주말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된다. 대상이 되는 인원은 194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 (75세 이상)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약 204만명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 백신인 만큼 접종 후 기존 백신들보다 힘들 수 있다며, 최상의 몸 상태에서 접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중증도급성질환이 진행 중이라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2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7일부터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2차 접종 간격이 3주인데, 정부는 매주 단계적으로 물량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1차 접종을 추가로 받지 않고 2차 접종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다 이달 6일 43만6000회분, 12일 43만8000회분이 들어와 백신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서 대량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주간은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7일부터 다시 1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무엇보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 당일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접종 후에는 관찰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상의해 접종 일정을 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가족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도와주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접종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본가 RESTAURANTE BONGA

숯불구이 양념 돼지갈비 전문



전골류	안주류	육 류	찌개류	국수류
샤브샤브	아구찜	(솥뚜껑구이)	꼬리곰탕	냉 면
부대찌개	두부김치	꽃등심	된장찌개	칼국수
동태전골	춘천닭갈비	안창살	청국장	잔치국수
불고기 전골	오징어볶음	LA 갈비	육개장	콩국수
만두버섯전골	골뱅이무침	삼겹살	어죽탕	
소고기버섯전골	오리주물럭	돼지갈비	순두부찌개	
오삼불고기전골	김치고등어찜	오리주물럭	돼지김치찌개	
어죽탕국수전골	김치돼지갈비찜			
돼지김치두부전골				

맛있는 김치 주문받습니다

덮밥류	예약메뉴
제육덮밥	오리백숙
불고기덮밥	닭백숙
오징어덮밥	보쌈, 족발

2445-6050, 3147-7921 / 34 AVE. 1-36 Z. 7 (NAIS 식당 건너편 위치)

본가 옆 나이스 주차장 사용가능 / 로데오 합동 배달서비스 이용 가능

사실을 주변에라도 알려야 한다.

다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중증도 급성질환이 진행 중이라면 일정을 미뤄야 한다.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접종기관에 증상을 알린 후 일정을 조정하면 된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백신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준비할 건 없다"면서도 "중증도 급성질환은 백신접종 주의·금기사항에 해당된다. 새로 생긴 질환이 증상이 심해지는지 몸 상태를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임상결과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도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봤다. 오히려 만성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중증 악화·사망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원석 교수는 "접종 후 맥박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가라앉기 때문에) 접종 전 예진하는 의사에게 상태를 정확하게 말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기저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던 약도 계속 복용하면 된다. 암환자나 중증 면역질환자 역시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며, 코로나19 중증 악화 위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백신접종 전 검사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폐렴 등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젊은층과 달리 감기에만 걸려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평소 혈압이나 당뇨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백신접종 하루 이틀 전 혈액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맞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 교수는 "화이자 백신접종 후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 백신접종 후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며 "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자들은 2주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피로감이 느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경우에 따라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종 전 사전 예진표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써야할지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미리 써가면 좋다. 특히 다른 백신접종에서 중증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 있다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해열제를 미리 복용할 필요는 없다. 열이나 근육통 등 이상증상은 접종 후 반나절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해열진통제 지속시간은 6~8시간 내외이기 때문이다. 약을 미리 먹기보다는 접종 전 상비약을 준비해뒀다가 열감이 느껴지면 빨리 약을 먹는게 중요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열이 나면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접종 당일에는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심한 운동이나 과음을 피해야 한다. 최원석 교수는 "술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만 한국 음주문화가 보통 한 잔에서 끝나질 않으니 웬만하면

마시지 않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노래주점 손님 살해범은 '조폭' 경찰, 21일 검찰 송치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씨(34)가 인천의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할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감염병 예방법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씨는 지난해 1월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허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허씨는 2010년부터 인천 중구 신포동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허씨는 2010년 10월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했고, 2019년 꼴망파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 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폭행·상해 등 전과가 많은 허씨는 2011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폭력조직 활동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을 찾은 손님 A씨(41)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버린 것이다.

조사 결과, 허씨는 A씨가 추가 요금이 나왔는데도 내지 않고 오히려 새벽까지 영업했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12에 신고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는 21일 허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가 돌로 가격했다"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 끊이지 않는 억측

친구를 향한 억측 이어져
신상털이도 여전..실명 부르기도
내 가족처럼 감정이입해 이러한 반응
단정적 표현은 삼가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A씨가 손씨를 폭행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억측이나 오해가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한 커뮤니티에는 'A씨 부모가 찾던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은 A씨 부모가 손씨를 찾기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손씨를 가격할 때 사용한 돌을 찾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의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자상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출혈은 심했을 것"이라며 "기절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는 실종 지점 인근에 혈흔이 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추리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손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 인근 수풀과 배수구 등에 혈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손씨의 것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혈흔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한강공원 인근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돌로 가격을 당했고 주변에 혈흔이 있을 것이라는 누리꾼의 의혹 제기엔 신빙성이 적은 것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선 A씨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가족 신상정보로 추정되는 내용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16일 한강공원에서 열린 '손씨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일부는 A씨의 실명을 부르며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A씨 부모의 지인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이어서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퍼졌다. 전날 A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이젠 A씨 부모의 지인이 고위직 출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전 서초경찰서장이 A씨의 외삼촌이고, A씨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고위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뉴스와 신상털이가 계속되자 A씨 측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A씨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일부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억측이나 단정적 표현은 삼가해야 2차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옛 애인 잊고싶어" 남산타워 '사랑의 자물쇠' 따러 한국 온 美20대녀

미국의 한 여성이 2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 남산타워 담장에 잠근 사랑의 자물쇠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과정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서울까지 날아온 캐시 영(23)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최근 한국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비행기 안에서 시작된 영상은 캐시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분 양

ZONA 10 Moretti
아파트 분양
2022년 12월 완공





Z.14 Casa Roble
Santa Ines del
Parque, Vertic 분양

Z.15 아파트 분양
Albero San Lazaro
2023년 4월 완공
최고의 위치. 저렴한 가격



새물건

Z.14 Vivaldi 아파트 판매 $275.000, 임대 $1200+Iva, 154mts, 방3.거실2, 주차장2
Plaza San Cristobal 후문쪽 상가 임대. 330mts, $2,000
Z.7 Difiori 아파트 판매 $135.000, 임대 Q5.000, 72mts, 방3, 화장실2, 주차장2

임대

Z.7 중국성 맞은편 상가 및 사무실 임대.
Z.7 mateo flores 상가용 주택 임대. 530mts, $2.200, 방20. 화장실8. 주차장11. 반절 임대 가능
Z.10 Portofino 아파트 임대 $1,275. 219m2. 방3. 식모방. 주차장2
Z.14 Casa once 아파트 렌트 $1.200 방3.주차장2.창고
Z.14 Unio 새아파트 원룸 임대. $950(iva, 관리비 포함) 77mts. 주차장 2
Z.15 VH1 아파트 임대, $1.500, 235mts, 방3, 거실2, 식모방, 주차장3, 창고3
Z.15 VH2 주거 및 사무실용 주택 임대. $1850, 640mts, 방3, 화장실4, 주차장4

판매

Z.7 mateo flores. Las Brisas 콘도. 주택판매. $210.000. 220mts. 방3. 화장실3. 주차장2
Z.11 Parque 11 아파트 판매. $155,000. 105mt2 + 주차장2. 방3
Z.11 아파트 Aralia 판매 $185.000, 116mts+주차장2+창고. Total 144mts. 방3, 화장실2
Z.12 Prados Monte Maria 아파트판매 Q840,000. 84mt. 방3. 주차장2
Z.14 Torre Canada 아파트 판매($350,000)-245m2.방3. 화장실3. 식모방
Z.14 Casa once 아파트 판매 방3.주차장2.창고. $280,000
Z.15 LIV 아파트 판매. $320.000. 120mts + 주차장2. 방3. 화장실3. 식모방
Z.16 Lomas de San Lsidro 넓은 주택판매. $500,000
Carretera al salvador. km9. Torre real 아파트 판매. $625,000. 329mts

한인부동산

토지.아파트.주택.오피스.창고.상가/판매.분양.및 렌트
문의전화 : 5252-3431 (하나 김)
(hanakim3431@gmail.com)

가 한국에 도착한 후 마트에 들러 '미니 니퍼'를 구매하고 남산에 오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마침내 남산타워 근처 사랑의 자물쇠 명소에 도착한 캐시는 니퍼를 흔들며 자신이 2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잠갔던 자물쇠를 찾기 시작했다.

수 분 뒤 캐시는 과거 남자친구와 사랑을 약속했던 자물쇠를 찾아 끊어버린 후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날 캐시가 다시 방문한 '남산공원 사랑의 열쇠광장'은 많은 연인이 찾는 유명 데이트 명소로 두 사람이 함께 자물쇠를 담장에 잠근 후 열쇠를 담장 너머로 던지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파리 시내 퐁네프 다리 등과 함께 연인이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국내외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캐시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았던 것은 지난 2019년 여름이었는데 남자친구와 결별한 탓에 이번 봄에 홀로 찾아와 과거의 추억을 끊어낸 것이다.

그녀는 또 한국에 온 목적이 이뿐만 아니라 "해보고 싶었던 백업 댄서 일자리를 알아보려 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틱톡 팔로워가 38만 명이 넘을 만큼 많은 구독자를 소유하고 있는 캐시지만 해당 영상은 특히 입소문을 타며 450만 명 이상이 시청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파리 등 많은 명소에 과거 애인과의 추억을 남기지만 그것을 다시 찾아낸 것이 대단하다", "함께 던졌던 열쇠로 풀지 않으면 소용없다", "재밌는 영상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강공원서 만취 구토하다 물에 빠진 20대男 구조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만취 상태로 물에 빠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됐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2분쯤 잠실 한강공원 편의점 앞 한강변에 빠진 A씨(20)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한강변에 누워 있다 구토를 하기 위해 몸을 숙이던 중 강물에 빠졌고, 수중계단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1시17분쯤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함께 A씨를 물밖으로 구조했다.

이후 경찰은 11시28분쯤 지구대로 들어온 한 부모의 실종신고 대상과 A씨가 동일임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아들을 인계했다. 경찰은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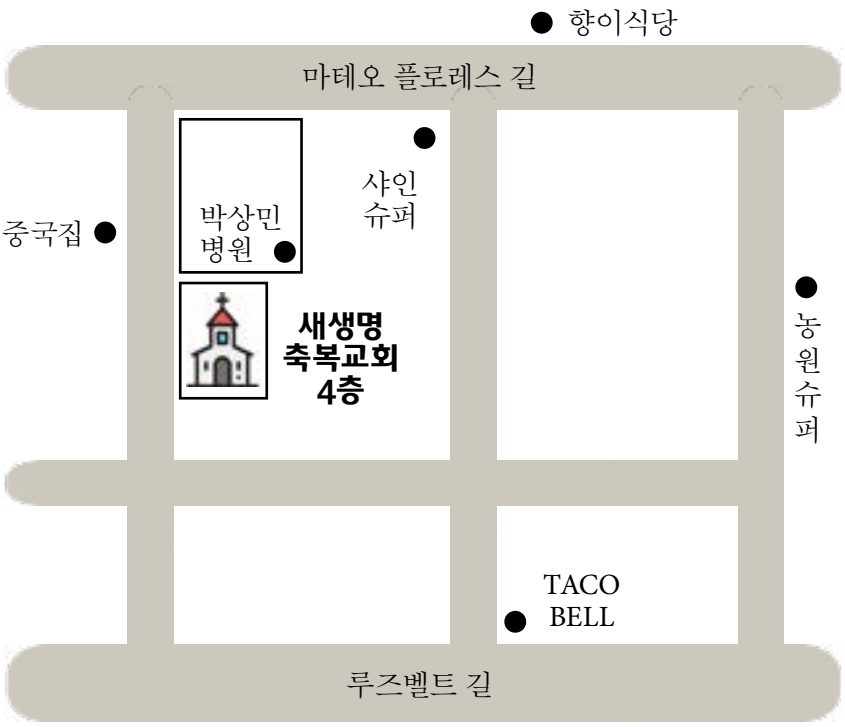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동네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전하게 구조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새생명 축복 교회 / 기도원

교회 이전





담임목사 김 안 나

주일 예배 : 오전 10시
기도원 예배 : 매일매일 낮 기도회 1시
수. 목. 금 저녁 7시

36 AVE 1-70 COL. TOLEDO ZONA 7 / ☎ 5037-0354

PLASTIC UNI, S.A.

SINCE 1999

Recycled Content Standard (RCS) 인증

OPP TAPE 2" / 3" CLEAR 각종 색상 테이프
POLY BAG (PE / PP / HDPE)
TAG PIN (투명 / 흑색 / 실크)

TEL : (502) **육육사사-삼삼영영** [PBX]
FAX : (502) **육육삼삼-팔삼사육**
CEL : (502) **오사이삼-사삼오팔**

plasticuni@pu.com.gt
3ra. Ave. lote 11 Grupo Zeta la Union ca-9
Sur Amatitlan, Guatemala

ALFAPLASTIC, S.A.

의류용(긴급 선적 발주 받습니다)　　산업용
식품포장 등 상업용　　농업용

ISO 9001 인증 진행중



농업용



마트용 롤백



의류용



쇼핑백

TEL: 6610-0400/ 0401
CEL: 4081-0552 이 상경 (상업, 산업, 농업용 담당)
5528-2018 이 석현 (의류, 원단등 마낄라 담당)
E-MAIL: venta@alfaplasticgtm.com (상업, 산업, 농업 제품)
alfa2@alfaplasticgtm.com (의류, 원단등 마낄라 제품)
km 16.5 Carretera a Villa Canales, 2A Calle 1-44
Col.Los Alamos, Zona 6 de San Miguel Petapa, Guatemalal

국 제

국제사회 뭐라하든.. 네타냐후 "공습 계속"

어린이 등 민간인 잇단 피해
유엔 등 휴전 촉구 한목소리
이스라엘, 전투기 54대 동원
가자지구 폭격 강도 더 높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선제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맹폭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혈 사태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스라엘은 공습 8일째에 접어든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향해 더 강도 높은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투기 54대를 동원,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의 하마스 지하터널 등에 110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에는 가자 시내에 있는 하마스 작전 본부 건물과 로켓포 발사대를 폭격했다.

또한 IDF는 이날 하마스 및 하마스와 연계된 무장단체 사령관 등의 자택을 집중적으로 공격, 이 과정에서 무장단체인 이슬라믹지하드(PIJ)의 가자 북부지역 사령관인 후삼 아부 하비드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측도 이날 이스라엘을 겨냥해 190발 이상의 로켓포탄을 발사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동안 가자지구에서만 200명이 넘게 사망했고, 이 중 어린이는 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은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 사회는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은 지난 16일 열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교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로켓포와 박격포를 쏘는 쪽도, 항공 공습을 하는 쪽도 모두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가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 이스라엘 강경 노선을 취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압박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은 반인륜적 범죄가 우리의 지원을 자행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인명 피해 증가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공격를 이어갈 태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 지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시민의 안정과 안보를 복원하기 위해 계속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하고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과의 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까지 이집트를 비롯해 다른 동맹국과 함께할 미국의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이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백신 2천만회분 6월 말까지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

"미국, 코로나19 전쟁서 백신의 무기고 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6월말까지 미국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회 접종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백신을 다른 나라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백신 스와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세계를 돕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미국이 승인한 백신 2000만회분을 앞으로 6주 안에 전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팬더믹(대유행병)이 통제되기 전까지 미국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무리 넓은 바다도, 아무리 높은 벽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타국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백신은 미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계열사 얀센 백신 등 3종이다.

이번 백신 지원은 기존에 밝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과는 별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7월 4일까지 AZ 백신 6000만회분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FDA는 현재 AZ 백신 사용 승인을 심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세계 백신 공급의 무기고(arsenal)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였듯,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선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8000만회분은 다른 국가들이 세계에 공유했던 백신보다 5배나 많다"며 "1500만회분을 지원한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 식 메 뉴		
감 자 탕	청 국 장	
영 양 탕	비 빔 밥	
염 소 탕	회 덮 밥	
영양수육	김치전골	
염소수육	부대찌개	
한 방 닭	생선백반	
한방백숙	비지찌개	
한방오리탕	왕돈까스	
장모보쌈	동태찌개	
삼 겹 살	오징어덮밥	
해 물 탕	오삼불고기	
매 운 탕	야채불고기	

자장면	짬뽕	볶음밥	누룽지탕
간짜장	해물짬뽕	짜장밥	탕수육
사천짜장	홍합짬뽕	짬뽕밥	칠리탕수육
삼선짜장	해물불짬뽕	잡채밥	반반탕수육
고추짜장	콩나물짬뽕	야끼밥	육해공잡탕
쟁반짜장	매운굴짬뽕	잡탕밥	잡탕
유니짜장	옛날백짬뽕	고기덮밥	팔보채
삼선간짜장	육해공짬뽕	고추덮밥	양장피
해물불짜장	해물어묵짬뽕	삼선볶음밥	유산슬
짬짜면	삼선야끼우동	새우볶음밥	깐풍기
짜우면	삼선우동	중화비빔밥	깐풍육
뽂짜면	기스면	마파두부밥	깐풍새우
뽂짬면	유산슬밥	군만두	고추잡채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한 백신의 30%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하고,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자국에서 남아도는 백신으로 해외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혁신과 독창성, 미국 국민의 근본적인 품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가치로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세계 모든 곳의 팬더믹을 종식하기 위해 이 백신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어느 나라와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공유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신속한 백신 접종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선 성인 60%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며 "이 행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팬더믹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개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다"며 "사망률은 81%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진전과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다시 폭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머스크도 투자했어" 코인사기 당하는 젊은층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으고 결국 잠적하는 등의 사기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피해자는 젊은층에서 많았다.

17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7000건이 넘는 관련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액수는 모두 8000만달러(약 910억원)에 달한다.

FTC는 "막대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약속은 거짓말일 뿐"이라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자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친절하고 때론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신뢰를 쌓은 사기범은 유명인이 어떤 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것이라고 귀띔해주거나, 수익이 크게 느는 것처럼 보이는 정교한 암호화폐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투자를 부추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수익을 얻었다고 착각한 투자자는 지인에게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소개를 통해 사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명인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속이며 가상자산을 주면 몇 배 불려주겠다고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칭 관련한 피해액수만 200만달러(약 23억원)가 넘었다.

이밖에 사기범은 자신이 사회보장국(SSA) 관계자라며 비트코인 현금인출기(ATM)에 돈을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최

근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로 가장하거나 교제를 미끼로 암호화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 한 명이 사기로 인해 잃은 개별 피해액수의 중간값은 1900달러(약 2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FTC는 투자 경험이 적고 보다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20·30대 젊은 투자자의 투자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다만 50세 이상의 투자자는 피해건수는 적었지만 피해액수가 더 컸다. 중간값이 3250달러(약 370만원)로 나타났다.

외신은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 등이 사기가 횡행하게 된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1만달러대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한때 6만3000달러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11시 비트코인은 4만4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차량 구매를 중단하는 등 악재가 계속된 영향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머스크가 입을 열 때마다 널뛰기를 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애매한 내용의 트윗으로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치는 머스크의 행위가 부적절하며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

머스크 암호화폐에 한눈팔고 있는 사이 테슬라 위기 봉착

테슬라 안팎으로 경영위기 직면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암호화폐(가상화폐) 시황을 쥐락펴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지만 정작 본업인 테슬라는 안팎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을 독점해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등 안팎으로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테슬라는 ⊿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에서 점유율 급락 ⊿ 기존 완성차 업계의 도전 ⊿ 자유주행차의 잇따른 사고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 테슬라 주가 연일 급락 :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보다 2.19% 급락한 576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전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개인 재산도 급격히 줄어 머스크는 세계2위 부호에서 세계3위 부호로 한계단 내려왔다.

◇ 반도체 부족 :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도 예외일 수 없다.

실제 테슬라는 반도체 부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 적도 있다. 테슬라는 지난 3월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었다.

차량용반도체 공급 부족현상은 반도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언제라도 또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

◇ 기존 완성차 업계 전기차 시장 속속 진입 : 기존의 완성차 업계가 잇따라 전기차 시장 진입을 선언하고 있어 더 이상 테슬라가 탄소배출권을 독점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초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앵(PSA)의 합병으로 탄생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테슬라의 탄소배출권을 사지 않기로 하면서 테슬라는 수억 달러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스텔란티스가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게 됐다며 더 이상 테슬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환경오염을 낮추는 데 기여한 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성과급)로, 테슬라는 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순익을 내왔다.

이같은 트렌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물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 등 기존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강자들이 잇따라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 더 이상 탄소배출권을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중국 점유율 27% 급락 : 테슬라의 4월 중국 판매량이 전월 대비 27% 급감했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4월 중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은 2만5845대로 3월의 3만5478대보다 27% 줄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비야디(BYD)의 전기차 판매는 3월 2만3906대에서 4월 2만5450대로 6.5% 늘며 테슬라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중국에서 테슬라의 부정적 이미지도 부각되고 있다.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고발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테슬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 잇따른 자율주행자 사고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도 테슬라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18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테슬라 모델S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나무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반자동운전 시스템에 대한 정밀조사가 확대되고, 최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대량 출시를 앞둔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잇따른 사고는 자율주행차 출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테슬라가 여러 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머스크 CEO는 암호화폐 놀음에 도끼 썩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란의 게이남성, 군면제 받은날 친척에 의해 참수당해

이란의 스무살 난 게이 남성이 동성애자란 이유로 명예 살인을 당했다.

성소수자 네트워크인 '6RANG'는 이란 아바즈에 사는 게이 남성 알리 파젤리 몬파레드가 지난 4일 친인척 남성들에 의해 납치당했으며 다음날 참수된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성소수자 활동가는 지난 2019년부터 사망한 몬파레드와 연락을 했는데 살인은 그의 성정체성이 밝혀진 다음날 일어났다고 전했다.

사망한 게이 남성의 성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은 그의 이복 형제가 몬파레드의 군면제 카드가 담긴 봉투를 먼저 열어보았기 때문이었다.

군 면제 카드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의해 발급된다. 몬파레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힘으로써 면제 카드를 받게 되었다. 이란 군대법 7조 5항에서는 성소수자의 군역을 면제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란의 게이 남성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게이 남성을 참수한 이들은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아들의 시체가 야자수 아래에 있다고 알려줬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입원했는데 몬파레드는 외동이었다.

몬파레드의 파트너는 현재 터키에 살고있으며, 그의 참수에 가담했던 남성은 이복형제와 사촌 등 모두 세명으로 이들은 모두 체포되어 일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당한 몬파레드는 이란 부유층의 자제로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명품에 대한 애정이 잔뜩 묻어난다. 그는 또 화장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공개적으로 얼굴에 화장을 하지는 못했다.

몬파레드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에서 "압력이란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화장을 좀 하고 걸어다니고 싶지만 내가 사는 아바즈가 어떤 곳인지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말도 했다. 그는 아버지쪽 친척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든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몬파레드는 이란을 벗어나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먼저 파트너가 있는 터키로 간 뒤에 노르웨이나 스웨덴으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을 계획했다. 이달 중순에 이란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군 면제 카드가 먼저 도착했고 결국 비극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이란에서 동성애는 금지되어 있고, 100대의 회초리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지만 군대는 면제된다. 이란 군대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모스크바가 훌러덩 벗었다 60년만에 영상 30도 넘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17일(현지시간) 봄철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 60여 년 만의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

현지 기상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모스크바 시내 일부 관측소의 기온이 섭씨 영상 30.5도까지 올라갔다. 모스크바의 5월 평균 기온은 영상 13도 정도다.

모스크바 시당국은 이날 관내에 5등급 날씨 위험 경보 가운데 최악('적색' 경보) 바로 아래 등급인 '오렌지색' 경보를 내렸다.

오렌지색 경보는 날씨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기상 당국은 이날 기온이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58년에 세워진 5월 17일 자 역대 최고온 기록(영상 27.1도)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제정 러시아 시절인 1879년 모스크바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5월 17일 자 최고 기온 기록은 1897년에 세워진 영상 31도다.

18일에는 모스크바의 기온이 영상 30~32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기상 당국은 예상했다.

"10만원으로 4시간 안에 어디든"

마하 2.2 비행기 2026년에 뜬다

약 20년 전 비운의 여객기 콩코드가 끝내 이루지 못한 초음속 비행기의 상업화 꿈이 어쩌면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00달러(약 11만3800원)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4시간안에 전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이 비행기를 안탈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CNN은 17일(현지시간) 초음속 여객기를 상용화하려는 신생기업들 중 선두주자인 '붐 슈퍼소닉'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블레이크 숄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숄은 이번 인터뷰에서 2026년까지 공중으로 띄우고자 하는 마하2.2의 상업용 항공기인 '오버추어'와 회사의 야심찬 장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오버츄어가 64~88명의 승객을 태우고 500개 이상의 대양횡단 노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비행기는 마하 2.2 속도의 혜택을 받아 뉴욕에서 런던까지 3시간 15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숄은 "지금 비행기 기술은 50년대와 60년대에 비해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며 "우선적으로 시간의 장벽을 깨는 것이 소리의 장벽을 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3년 11월 운행을 중단한 콩코드 여객기는 이동간의 시간은 크게 단축했지만 큰 소음 때문에 상용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숄은 "시간의 장벽을 깨면 휴가를 갈 수 있는 곳, 사업할 수 있는 곳, 사랑에 빠지거나 친해질 수 있는 곳 등이 바뀐다"며 "이는 곧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콩코드 여객기 사업 실패의 또다른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콩코드 여객기 왕복 비용은 1만2000달러(약 1363만원), 현재 시세로 2만달러(약 2272만원)이었다.

숄은 "당시 콩코드를 타는 것은 여행이 아니었다"며 "우리가 개발하는 비행기는 단돈 100달러로 4시간 안에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HANA TOUR

☆ 세계 전 지역 항공권 – 멕시코 직항 / 한국 출발 / 과테 출발 / 전세계 출발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단체 패키지 여행
(쿠바 / 코스타리카 / 브라질 / 페루 / 유럽 / 칸쿤
☆ 크루즈 여행

이희경(Edita Lee)
502) 3042 6968 / 카카오톡 ID :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 Av. 16-35 #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유명한 집

매주 화요일 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MENU

떡만두국
떡 국
닭똥집 볶음
오리훈제구이
생삼겹살
닭도리탕
부대찌개
오리주물럭
삼계백숙
오리탕전골
도가니 수육
소모듬 수육
수육전골
매운 등뼈찜
매운 꼬리찜
뼈없는 닭갈비
감자탕 전골

2시간전 예약

등갈비 김치찜
한방 굴보쌈
한방 토종닭
한방오리수육

MENU

콩나물해장국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콩국수
잡채밥
육계장
뚝배기불고기
된장찌개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우거지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흑마늘 삼계탕
들깨 삼계탕
삼계탕
오리탕 뚝배기
감자탕 뚝배기
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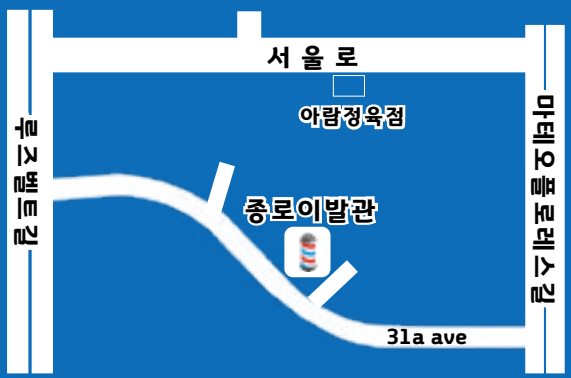




1Calle 35-09 Zona 7 col. Toledo / 2433-9788, 4646-1119

종로이발관

이발, 면도, 염색



31ave 0-63 Zona 7
4047-6842
2253-5508

스 포 츠

손흥민-지소연 英 매체가 뽑은 올해의 팀 선정

손흥민과 지소연이 각 리그 올해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은 17일(한국 시각) 2020/21시즌 결산을 맞이하면서 잉글랜드 각 리그 부문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지소연(첼시 위민)은 각각 프리미어리그와 위민 슈퍼리그 올해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언론이 꼽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아스톤 빌라) 골키퍼를 비롯해 수비에 루크 쇼(맨체스터 유나이티드)-후벵 디아스-존 스톤스-주앙 칸셀루가 이름을 올렸고 미드필더에는 케빈 데 브라이너-일카이 귄도안(이상 맨체스터 시티)-브루노 페르난데스(맨유)가 선정됐다. 공격진엔 손흥민-해리 케인(이상 토트넘 홋스퍼)-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뽑혔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종전 단일 시즌 리그 최다 골인 14골을 넘어선 손흥민은 남은 두 경기에서 사상 최초로 리그 20골에 도전 중이다. 그는 지난 시즌 11골 10도움을 기록한데 이어 두 시즌 연속 10-10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최고의 파트너 케인과의 호흡이 돋보였던 시즌이다. 시즌 초반 엄청난 기세로 득점과 도움을 주고받은 두 선수는 도합 14골을 합작해 종전 13골을 합작한 1994/95시즌 블랙번 로버스의 앨런 시어러-크리스 서튼 듀오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합작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케인은 22골 13도움으로 현재 두 부문 모두 선두에 올랐다. 득점은 살라와 공동 선두이며 도움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두 개 많은 단독 1위다. 득점은 줄었지만 조세 무리뉴 감독하에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압도적인 도움 숫자를 기록했고 케인 역시 커리어 첫 10-10을 기록했다.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맨시티 선수들이 무려 5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극강의 수비력을 자랑한 디아스와 스톤스, 그리고 칸셀루가 눈길을 끈다.

한편 WSL 올해의 팀에는 지소연이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이번 시즌 19경기에 나서서 2골 1도움을 기록했고 소속팀은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해 리그 2연패에 성공했다. 리그컵도 우승해 더블을 기록한 첼시는 UEFA 위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진출했지만 19일 열린 바르셀로나와 경기에서 0-4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케인 "토트넘 떠나겠다" 맨유, 맨시티, 첼시 3파전

해리 케인(28, 토트넘)이 확실하게 이적의사를 전달했다.

'스카이스포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토트넘 구단에 올 여름 이적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는 케인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 토트넘의 무관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케인은 확실하게 우승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의 3파전 양상이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65골로 역대 4위에 올라있는 케인은 웨인 루니의 183골 통산 1위 기록을 경신하길 원한다. 케인이 타 리그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스카이스포츠는 "케인의 가치는 1억 5천만 파운드(약 2408억 원) 정도로 네이마르(1억 9800만 파운드, 3178억 원)나 킬리안 음바페(1억 6300만 파운드, 2617억 원)보다는 낮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그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은 많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토트넘과 케인은 2024년까지 계약돼 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만족스러운 금액에 케인을 팔기도 쉽지 않은 시장상황이다. 과연 케인의 이적이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학범호, '잠재적 8강 상대' 일본과 평가전?.. 日언론 "현재 조율 중"

도쿄올림픽을 한 달 앞둔 김학범호의 6월 평가전이 한일전으로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일본 언론 스포니치 아넥스는 18일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올림픽대표팀이 다가오는 6월, 대한민국과 평가전을 가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은 "일본축구협회가 다음 달 5일 가나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 뒤 12일에 대한민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잡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A조에서 남아공, 멕시코, 그리고 프랑스와 8강 진출을 두고 경쟁한다. 가나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지만 언론은 "가나는 첫 상대인 남아공의 가상 상대로 훌륭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에 대해선 "지난 3월에 성인 대표팀과 경기를 치렀다. 이번엔 세대가 다르지만 역시 양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로 관심을 끌 것이다. 만일 양 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경우,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도쿄올림픽 토너먼트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올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예약제
영업합니다.

- 예 약 전 화 -
오팔영사-영영삼영
23ave 1-43 Zona 7

2시간전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영업시간 월~일, 오후 4시~9시)

도 레 미



축하합니다!

시각예술로 가는 길. 앤지정 화실
한국 최대 입시 미술학원 그린실 과테말라 지점

지난해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최한 미주 온라인 문예공모전 중미카리브 협의회 예선에서 3위를 차지한 김레이 학생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제목: 피어나는 미래
작가: 김레이
(Equity American School)

Through this artwork, I portrayed the likelihood of a bright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for when and if North and South Korea are to be united peacefully.
There are two flowers in the artwork, which are the naional flowers of the two countries, signify the individualism from each Korea; each of them has its own uniqueness.
The branches represent "new life" and "growth". Although the tree branches are separated, they all derive from a single tree. which shows tha the two Koreas share the same root.

소수 그룹 대면수업 / 온라인 수업 진행중입니다.

카톡아이디: angienius@gmail.com
전화: 5834-1414 웹싸이트: angiechung.com
이메일: whenartistheway@gmail.com

카톡 QR코드:

림픽 대표팀은 B조에 편성돼 뉴질랜드, 온두라스, 루마니아와 한 조다. B조 1위와 A조 2위, B조 2위와 A조 1위가 8강에서 상대하게 돼 한일전이 8강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8강에서 성사되지 않고 양 팀이 모두 4강에 진출한다면 3, 4위전 혹은 결승전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수도 있다.

한편 일본은 두 경기를 치른 뒤 18인의 도쿄올림픽 최종명단을 발표할 전망이다. 언론은 "최종명단이 발표된 뒤 두 차례 강팀과의 평가전을 치른 뒤 올림픽 무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범호는 5월 31일에 한 차례 소집해 평가전을 치른 뒤 6월 말 즈음 최종 소집해 옥석을 가르고 6월 마지막 주에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올림픽 대표팀은 첫 경기 뉴질랜드전이 열리기 5일 전인 7월 17일에 일본으로 출국해 사상 두 번째 메달 사냥에 나선다.

'결정적 한 방' 삼성 강민호, 진짜 야구 9회 2아웃부터 시작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몰린 9회 2사 1,3루 상황에서 삼성 강민호는 단 한 방으로 팀을 구했다.

앞선 두 경기를 모두 내주며 2위 LG에 반 경기 차까지 추격당한 삼성은 우천 취소로 편성된 월요일 경기를 치르기 위해 지난 17일 잠실구장을 다시 찾았다.

1위 탈환을 노리는 LG는 켈리, 지켜야 하는 삼성은 이승민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다. 결과는 팽팽한 투수전. LG 켈리는 7이닝 무실점, 삼성 이승민은 4이닝 1실점 후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후 양 팀 모두 필승조를 가동해 실점 없이 9회까지 경기를 끌고 왔다.

9회초 잠실구장 전광판 스코어는 1대0. 손에 땀을 쥐는 상황에서 LG는 마무리 투수를 올려 경기를 끝내려 했다. LG 마무리 고우석은 첫 타자 김상수는 투수 앞 땅볼, 구자욱은 볼넷, 이어진 타자 피렐라에게는 안타를 맞으며 1사 1,3루 실점 위기에 몰렸다.

고우석은 다행히 이어진 승부에서 오재일을 4구째 154km 직구로 삼진 처리하며 숨을 돌렸다. 이제 남은 아웃카운트는 단 하나. 3타수 무안타로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강민호는 비장한 표정으로 타석에 들어섰다.

9회초 2사 1,3루 1볼 2스트라이크. 고우석은 경기를 끝내기 위해 직구를 던졌다. 결과는 우중간 적시타. 154km 직구를 노린 강민호가 힘찬 스윙으로 루상에 나가 있던 구자욱과 김자친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이원석의 안타 때는 전력 질주로 득점까지 올린 강민호는 9회말 포수 마스크를 다시 쓰고 마무리 오승환과 함께 승리를 지켰다.

올 시즌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포수 강민호의 이날 활약상을 사진으로 모아봤다.

1위 가려면 홈런 막아라 최소 피홈런 LG, 최다 홈런 1,2위를 만난다

최소 피홈런팀이 최다 피홈런팀과 만난다.

1위를 눈앞에서 놓쳤던 LG 트윈스가 최다 홈런 1,2위 팀과 연달아 만나 1위에 재도전한다.

LG는 17일 잠실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서 1-0으로 앞선 9회초 2아웃까지 만들어 승리와 함께 1위 등극에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았으나 아쉽게 1대3으로 역전패했다.

이번주 NC 다이노스, SSG 랜더스를 상대로 다시 선두에 오르기 위한 진군을 이어가야 한다.

2위 NC와의 주중 홈 3연전이 일단 위기가 될 수 있다. NC는 올시즌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다. 35경기서 57개의 홈런을 쳤다. 경기당 1.6개의 홈런을 치고 있다.

애런 알테어가 12개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 나성범이 10개, 박석민이 8개, 양의지가 7개의 홈런을 날리고 있다.

NC와 개막전에서 딱 한번 만났는데 당시 2대1로 승리했을 때 유일한 실점이 나성범에게 맞은 1회말 솔로포였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잠실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NC의 장타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주말엔 인천에서 SSG를 만나는데 SSG는 홈런 2위 팀이다. 35경기서 44개의 홈런을 쳐 경기당 1.3개의 홈런을 기록 중이다. 제이미 로맥과 최 정이 9개씩 때려냈고, 추신수가 7개를 날렸다. 지난 4월 9~11일 잠실에서의 3연전서 SSG는 LG에 최정의 홈런 1개에 머물렀다.

NC와 SSG가 홈런의 팀인데 반해 LG는 홈런을 맞지 않는 팀이다. 36경기를 하는 동안 맞은 홈런이 19개다. 10개 팀 중 유일하게 피홈런 20개를 넘지 않은 팀이다. 켈리가 4개, 이민호가 3개, 정찬헌과 이정용이 2개씩을 맞았다.

1위 삼성과의 차이는 1.5게임차. 최근 LG가 투-타 밸런스가 좋아진 상황이라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1위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선 이번주 만나는 홈런팀에게 홈런을 맞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시즌 13호포' 오타니, ML 전체 홈런 단독 선두 통산 60호

LA 에인절스 투타겸업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시즌 13호 홈런을 터뜨렸다.

오타니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에서 3-1로 앞선 2회 1사 1,3루에서 샘 헨지스를 상대로 우월 스리런을 터뜨렸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전날(17일) 9회 경기를 뒤집는 역전 투런포에 이어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린 오타니는 시즌 홈런 13개째가 됐다. 오타니는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애틀랜타), 미치 해니거(시애틀), 애런 저지(양키스, 이상 12홈런)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날 홈런은 오타니의 메이저리그 통산 60호 홈런이기도 하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새라 랭스 기자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100탈삼진 이상, 타자로 통산 60홈런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오타니가 역대 5번째다.

텍사스, 게릿 콜 무너트렸다 양키스 5-2 제압 '6연패 끝'

텍사스가 뉴욕 양키스의 에이스 게릿 콜을 무너트렸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 4연전 1차전에서 5-2로 승리했다.

텍사스는 6연패에서 탈출하며 시즌 19승 24패를 기록했다. 아직 경기를 마치지 않은 LA 에인절스를 제치고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로 도약. 반면 2연패에 빠진 양키스는 동부지구 4위(22승 19패)로 떨어졌다.

선취점은 양키스 차지였다. 1회 DJ 르메이휴-루크 보이트 테이블세터가 연속안타로 찬스를 만든 뒤 지오 우르셀라가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텍사스가 2회 반격에 나섰다. 선두로 나선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우월동점 솔로포를 쏘아 올린 뒤 데이비드 달과 아이재아 키너-팔레파가 연속 2루타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후 3루 도루로 계속된 찬스서 호세 트레비노가 1타점 적시타를 추가했다.

텍사스는 멈추지 않았다. 5회 선두 윌리 칼훈이 달아나는 중월 솔로포로 격차를 벌렸고, 2사 1, 3루서 더블스틸을 통해 쐐기 득점을 만들어냈다.

양키스는 8회 2사 후 보이트의 솔로포로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상대에게 승기가 기운 뒤였다.

텍사스 선발 조던 라일스는 6이닝 6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 호투로 시즌 2승(3패)째를 챙겼다. 이어 존 킹-조시 스보츠-이안 케네디가 뒤를 책임. 타선에서는 칼훈과 가르시아가 나란히 홈런 포함 멀티히트로 활약했다.

반면 양키스 선발 게릿 콜은 5이닝 7피안타(2피홈런) 2볼넷 7탈삼진 5실점 난조로 시즌 2패(5승)째를 당했다. 다만, 이날 3회 1사 후 조이 갈로에게 볼넷을 내줄 때까지 볼넷 없이 61연속 탈삼진을 잡으며 종전 58연속(코빈 번스)을 넘어 메이저리그 이 부문 신기록을 세웠다.

K O H
clinica dental

¿ 이빨이 아프십니까 ? ¡ 더 이상 고통은 NO !

En Koh Clínica Dental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치주질환 치료, 신경치료, 치아 발치



교정, 보철, 미백
성인 및 어린이 스케일링
수술, 임플란트

Dr. Fernando Azmitia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ínica #5
2485-6718 / 2485-6719 / 3148-1105
Búscanos en redes sociales
Facebook: @KohClinicaDental Instagram: @kohclinica

연봉 28억원 타자, 20타석 무안타

"한국 MVP 발등에 불" 日언론

지난해 KBO리그 MVP 수상에 빛나는 멜 로하스 주니어(31·한신 타이거즈)의 일본프로야구 적응이 험난하다. 데뷔하자마자 20타석 연속 무안타로 한신 구단 최초 불명예 기록을 쓰는 망신을 당했다. 휴일도 반납한 채 특타를 할 정도로 로하스도 급해졌다.

'데일리스포츠'를 비롯해 일본 언론은 로하스가 17일 경기가 없는 휴일에도 고시엔구장의 실내 연습장에서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쪽 타석을 오가며 40분가량 훈련을 했다. 배팅볼 기계에 직구뿐만 아니라 변화구 입력 버튼을 눌러 다양한 공을 쳤다. 마지막에는 티배팅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데일리스포츠'는 '지난해 한국에서 홈런과 타점 타이틀을 따내며 MVP에 오른 로하스는 추정 연봉 250만 달러(약 28억원)다. 코로나에 의해 일본 방문이 크게 지연된 영향도 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고 특타 소식을 전했다.

고액 연봉을 받고 한신에 입단한 로하스이지만 지난 8일 1군 데뷔 후 20타석 연속 무안타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저스틴 보어의 데뷔 첫 18타석 연속 무안타를 넘어 한신 구단 최초 불명예 기록. 볼넷 1개로 딱 한 번 출루하면서 삼진만 7개를 당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15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전에서만 삼진 3개로 물러났다. 이날 경기 후 야노 아키히로 한신 감독은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좀처럼 확률이 높지 않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결국 16일 요미우리전에는 결장했다. 라울 알칸타라가 선발투수로 등판하면서 외국인 4명 출장 제한에 따라 한신은 외야수 제리 샌즈, 1루수 제프리 마르테를 선발 기용하고, 마무리투수 로베르토 수아레즈를 남겨두면서 로하스를 뺐다.

한신은 18일 고시엔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 상대로 홈경기를 갖는다. 5경기 만에 20타석 연속 무안타의 믿기지 않는 부진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로하스가 첫 안타로 돌파구를 찾을지 궁금하다.

美골프협, 거리측정기 사용 허가..선수들 "경기 안 빨라질 걸"

미국골프협회가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거리측정기를 사용토록 했다.

미국 골프위크는 5월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협회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PGA 챔피언십부터 거리측정기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짐 리처슨 PGA 오브 아메리카 회장은 거리측정기 사용에 대해 "경기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항상 찾고 있었다. 거리측정기 사용은 이미 골프계에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측정기 사용을 반기면서도, 거리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경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웹 심슨(미국)의 캐디 폴 테소리는 "협회가 시도하려는 건 좋다. 조직은 변화의 선두에 서있다. 처음으로 반바지를 허용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곳까지 도달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경기 속도가 빨라지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핀을 보고 샷을 한 뒤에 떠나는 게 아니다. 바람을 예측하고, 많은 홀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얘기했다.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캐디의 장점이 사라진다. 기술적으로 필드를 살피거나 굳이 연습할 필요도 없다. 거리측정기로 촬영 해보면 각도나 어떤 경사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0세 윌리엄스, 18세 피가토 꺾고 석 달 만에 WTA 승리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가 석 달 만에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승리를 따냈다.

윌리엄스는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WTA 투어 에밀리아로마냐오픈(총상금 18만9천708유로)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리사 피가토(572위·이탈리아)를 2-0(6-3 6-2)으로 물리쳤다.

윌리엄스는 올해 2월 호주오픈에서 4강까지 올랐고, 이후 한동안 대회에 나오지 않다가 지난주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 출전했다.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서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으나 2회전에서 나디아 포도로스카(42위·아르헨티나)에게 0-2(6-7<6-8> 5-7)로 져 탈락했다.

에밀리아로마냐오픈에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출전한 윌리엄스는 이날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내줬지만 이후로는 이렇다 할 위기 없이 1시간 8분만에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1981년생 윌리엄스가 이날 상대한 피가토는 2003년생으로 둘의 나이 차이는 22살이나 됐다. 18세인 피가토가 윌리엄스 나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WTA 투어 본선 경기 수로 따지면 윌리엄스가 이날 자신의 1천1번째 경기였고, 피가토는 이날이 자신의 WTA 투어 본선 데뷔전이었다.

지난해 프랑스오픈 주니어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피가토는 이날 경기를 마친 뒤 윌리엄스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기도 했다.

윌리엄스는 2회전에서 카테리나 시니아코바(68위·체코)를 상대한다.

윌리엄스보다 한 살 많은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102위·미국)는 1회전에서 안나 카롤리나 슈미들로바(125위·슬로바키아)에게 1-2(7-5 2-6 2-6)로 졌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C-SITE

C-SITE 과테말라 법인 채용 공고

1. 모집 부문 및 지원 자격

부 서	구인 직급	인원	부 문	지원 자격
영업부	경력(사원-과장)	1 명	원단 생산/관리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력(과장-차장)	1 명	현지 영업 (Vertical Sales)	▷영어, 스페인어로 업무 진행 가능자 (영어, 스페인어로 면접 진행 예정)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력(차장-부장)	1 명		

2.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3. 제출 서류

- 영문 또는 한글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4. 문의처

- 담당자 : 관리부 주임 한희성 (Alejandro Han)
- e-Mail : alejandro@c-sit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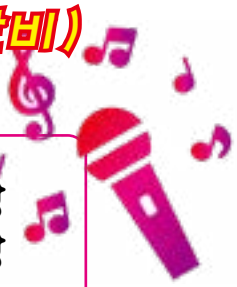
맛배달

<구> 용 노래방

오전10시~오후7시 주문 받습니다.



출출할 때, 한잔 땡길 때, 스트레스 쌓일 때
오셔서 화끈하게 푸세요 (최신곡 노래방 완비)



안주메뉴

무뼈닭발
돼지 껍데기
닭똥집 튀김
닭똥집 볶음
어묵탕
홍합탕
골뱅이소면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식사메뉴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소불고기
제육덮밥
오징어덮밥
청국장
육개장
돈까스
김밥
어묵탕
떡볶이
떡만두국

이사삼구-사영영사 / 오육구팔-영이일삼 1c. 35-80 Col.Toledo Z.7 / 월요일 휴무

방 송 / 연 예

이영애 '사임당 빛의 일기' 우즈벡 이어 스리랑카에도 판권 기증 선행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제작사 그룹에이트와 배우 이영애가 의미 있는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에 드라마 판권을 기증한 것. 코로나19 사태 속 K콘텐츠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결정이었다.

18일 OSEN 취재 결과, 그룹 에이트 측은 지난 2017년 방송됐던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극본 박은령, 연출 윤상호)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 기증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 국민을 위해 무료로 기증한 것.

그룹에이트 측은 한류드라마와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들 나라에서 다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방송 당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14개국에 판권 판매가 완료되는 등 주목받았던 작품. 제작사 측은 판권 판매의 수익을 포기하고 기증을 통해 K콘텐츠 전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드라마 '대장금'으로 이영애가 이들 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영애 역시 기증식에 참석하는 등 선행에 동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사임당 빛의 일기'를 기증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미 재방송까지 마친 상황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상황. 이영애는 '사임다아 빛의 일기' 기증으로 우즈베키스탄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영부인으로부터 감사의 친서를 받기도 했던 바다.

그룹에이트는 '사임당 빛의 일기' 기증 프로젝트를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임당 빛의 일기' 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은 그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금으로 쓰이도록 협약을 진행했다.

이지혜♥문재완, 시험관 시술+둘째임신 눈물 펑펑 '감동' (동상2)



이지혜 문재완 부부가 세 번째 시험관 시술 끝에 둘째를 임신 눈물을 쏟았다.

5월 17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서 이지혜 문재완 부부는 세 번째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다.

이날 이지혜는 세 번째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며 지난 시험관 시술을 언급했다. 미리 얼려 둔 냉동난자 25개 중 PGS 검사를 통과한 2개로 시도했던 첫 번째 시험관 시술 당시에는 착상에 실패했고, 두 번째 시험관 시술 때는 난자가 PGS 검사 통과를 못해 배아 이식조차 못했다고.

다행히 이번에는 난자가 PGS 검사를 통과해 이지혜는 세 번째 시험관 시술 배아 이식을 할 수 있었다. 문재완은 그런 이지혜를 위해 일일 호캉스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난 시험관 시술 때 시술을 받고 바로 라디오 스케줄을 소화한 이지혜가 이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문재완이 배려한 것.

문재완은 이지혜의 애착베개, 잠옷, 엽산, 화장품까지 챙겨오는 세심한 모습으로 감동을 줬다. 이지혜는 "5년 동안 많이 발전했다"며 "섬세한 남자다. 내가 쓰는 걸 유심히 본 것 아니냐"고 달라진 문재완을 칭찬했다. 이어 문재완이 이지혜가 첫째 임신 입덧 때 먹었던 선지해장국과 보너스 까지 선물하자 이지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와 함께 이지혜는 둘째 유산 아픔도 털어놨다. 이지혜는 눈물의 이유로 "너무 절박해서"라며 "첫째 저희 딸이 태리잖아요. 둘째는 태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을 못 쓰겠더라. 두 번째는 이름을 짓기도 전에 나왔으니까 그랬다. 태리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역시 유산 아픔을 겪은 이윤지는 이지혜에 공감 눈물 흘리며 "저는 시험관 까지는 안 했는데 문턱에 있었다. 요즘 소울이가 정말 예쁜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너라서 그런 거구나. 그 전에도 올 수 없는 거고, 후에도 올 수 없는 거고. 기다린 시간이 너이기 위해서였구나. 언니에게 올 소중한 아이가 맞는 시간에 올 거다. 너무 축복한다"고 응원했다.

9일 후 시험관 시술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왔고, 이지혜는 딸 태리에게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질문했다. 태리는 "있어요"라고 답했고 이지혜는 설레어하며 "남자동생이야, 여자동생이야?"라고 다시 물었다. 태리는 "남자 아니고 동생"이라고 대답했고, 이지혜는 "그럼 여동생인가?"라고 기대했다.

이지혜는 "평소보다 체온이 올랐는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INT, S.A.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 영업/ 생산관리직

- **채용인원**

신입사원 : 0 명

섬유관련산업에 관심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젊은 인재

경력사원 : 0 명
Vertical 의류 해외영업 생산관리직 근무
경력자 (2 년~7 년 동업종 경력자 우대)

- **자격요건**

과테말라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필수)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학력보다는 성품과 능력을 우선합니다
스페인어 또는 영어 능통자 우대합니다

- **근무조건**

주 5 일근무
보험(의료,생명,차량) 100% 지원
기타 복리후생은 회사규정에 의거

- **고용형태**

정규직

- **접수기간 및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기간 : 6 월 18 일까지 접수함

전형절차
1 차 : 서류전형
2 차 : 면접전형 (Tikal 본사)

- **구비서류**

이력서 : 국문 또는 영문
자기소개서 : 신입은 일반사항,
경력자는 경력관련 업무 위주 기술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 chris.lee@intsa.net
채용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기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데 감기 기운인지 모르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갔고, 잠시 후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문재완은 "아니야? 괜찮아"라며 지레 짐작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지혜의 임신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있었다. 문재완은 "됐네"라며 아내 이지혜와 함께 눈물의 포옹했다. 딸 태리는 눈물 흘리는 부모를 보고 함께 울었다.

이지혜는 "어떡해. 엄마 너무 행복해"라며 딸 태리도 안고 좋아했고, 함께 출연한 모든 출연진들이 이지혜의 둘째 임신을 박수로 축하했다. 문재완 이지혜 부부가 둘째 임신 과정을 모두 공개하며 뭉클한 감동의 순간을 시청자와 함께 나눴다.

'원초적 본능' 감독 "샤론 스톤, 속옷 탈의 거짓말 여배우라면 누구나 알아"



영화 '원초적 본능' 특별판이 개봉하는 가운데 주연 배우 샤론 스톤과 감독 폴 버호벤과의 갈등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샤론 스톤은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초적 본능' 재개봉에 대한 통제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뉴욕 포스트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원초적 본능' 특별판이 30주년 기념으로 공개되는 가운데 이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감독의 거짓말에 이용당했다고 말한 샤론 스톤은 새 버전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만약 이 영화가 오늘날 만들어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촬영 과정에)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지만, 이 영화는 그 전인 내가 젊을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밀했다. 1992년 영화가 만들어졌을 당시, 샤론 스톤의 나이는 34세였다. 그는 혀재 64세다.

악명 높은 취조실 장면에 대해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후회는 방귀와 같다. 돌려받을 수 없다. 일단 한 번 나가면 악취가 나고 사라진다"라고 솔직히 대답했다.

최근 회고록 '두 번 사는 것의 기쁨'(The Joy of Living Twice)을 발매한 샤론 스톤은 취조실 장면 촬영 당시 감독으로부터 받은 수치심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원초적 본능'을 찍은 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찾아간 곳에는 영화와는 무관한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 때 난 처음으로 내 음부 장면을 봤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독이 촬영 중 팬티를 벗으라며 '우리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흰색이 빛을 반사하니까'라고 설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샤론 스톤은 감독의 뺨을 때렸고 변호사를 통해 항의하며 해당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봉까지 막으려 했지만 결국 허락했다고 전했다. 영화와 캐릭터에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감독은 이에 대해 "샤론 스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여배우라면 누구나 카메라 앞에서 속옷을 벗고 가리키면 무엇을 볼 지 안다"고 말했다.

한편 '원초적 본능' 특별판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복원됐다.

'스파이럴' 1위 수성, 10만 관객 돌파 목전

영화 '스파이럴'이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파이럴'(감독 대런 린 보우즈만·배급 올스타엔터테인먼트)이 지난 17일 802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9만6334명이다. '스파이럴'은 경찰을 타겟으로 한 연쇄살인이 시작되고, 그들에게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다.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감독 소토자키 하루오·배급 워터홀 컴퍼니)이 이날 3579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200만7785명이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귀살대와 예측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혈귀의 일생일대 혈전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 '더 스파이'(감독 도미닉 쿡·배급 TCO 더콘텐츠온)가 이날 355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28만6639명이다. '더 스파이'는 1960년, CIA와 MI6의 스파이로 고용된 영국 사업가 그레빌 윈이 소련 정보원으로부터 핵전쟁 위기를 막을 중대 기밀을 입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작전에 뛰어든 역사적 실화를 담은 첩보 영화다.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감독 조진모·제작 아지트필름)가 이날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314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35만31명이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우연히 전달된 편지 한 통으로 서로의 삶에 위로가 되어준 영호(강하늘)와 소희(천우희)가 '비 오는 12월 31일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아날로그 감성 무비다.

영화 '미나리' '내일의 기억'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아들의 이름' '크루즈 패밀리: 뉴에이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순으로 박스오피스 5위부터 10위를 기록했다.

'슬의생', 시즌2가 기대되는 특별한 세 가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기대되는 특별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다.

6월 17일 방송 예정인 tvN 목요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이하 '슬의2')는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케미스토리를 담은 드라마이다.

지난 시즌이 매회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슬의2'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슬의2'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정리했다.

01 더 단단해졌다! 2회차 호흡 맞추는 믿고 보는 작감배 환상 호흡과 시너지 UP!

'슬기로은 의사생활 시즌1'(이하 '슬의1')은 제작진과 배우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시너지를 발휘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오랜 기간 함께 한 신원호 감독과 이우정 작가는 물론 만난 순간부터 찐친 케미를 선보인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의 호흡이 극의 재미를 살리며 몰입도를 상승시켰다.

믿고 보는 작감배 환상의 시너지는 시즌1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기도 했던 만큼 시즌2에서도 호흡을 이어가게 된 이들의 조합에 다시 한번 기대가 커지고 있다.

02 더 깊어졌다!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 따뜻+농밀하게 그려내며 공감 UP!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일상의 소



MEGA IPTV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송을 ...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시청가능!
서비스 및 문의전화 : 사영이영-사영삼영

1. 한국에서 방송중인 실시간 50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
2. 실시간 방송 외 영화, 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유아/어린이 등 원하는 시간에 시청가능
3. 기타 타사 IPTV의 고정관념 버퍼링 및 끈김현상 완벽 보완
4.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시청하지 못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저희 가 방문 후 MEGA IPTV로 바꿔 드리고 동시에 남은 잔여일을 보장 가능
5. 다양한 시청료 패키지
   6개월 / 12개월 + 설치비 무료!! 및 환불보장!!
6. 차별화를 둔 신속한 A/S



업무시간: 8:00 ~ 5:00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요일 및 방문시간 조정가능)
(전화연결 안될시 문자 및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소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슬의2' 대본 리딩 당시 "소소한 일상을 더 따뜻하고 농밀하게 그려내겠다"라고 말한 신원호 감독의 말처럼 '슬의2'는 더 깊고 따뜻하게 그려진다.

"특별한 우리들의 평범한 매일"이라는 '슬의2'의 메시지처럼 병원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더 진정성 있게 담아낼 예정이다. 소소한 일상을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와 공감을 전할 예정인 '슬의2'에 관심이 쏠린다.

03 더 높아졌다! 배우=캐릭터 혼연일체 된 완벽한 캐릭터 싱크로율 UP!

99학번 동갑내기이자 20년 지기 친구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는 시즌1부터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로 화제를 모았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5인방의 캐릭터와 배우의 혼연일체 된 열연은 안방극장을 사로잡으며 '슬의1'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섰다.

시즌을 거치며 더욱더 높아진 싱크로율은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로 끌어올린다. 특히 시즌1에서 그려진 입체적인 캐릭터들의 서사는 물론 5인방의 예측할 수 없는 관계 변화는 시즌2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6월 17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또 한 번 애니 바람?" 디즈니·픽사-지브리 동시 출격..도전 통할까

지난 1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꾸준히 사랑받으며 지난 16일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소울'(203만 8291명)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줄어들지 않아 영화계가 울상인 가운데 올해 100만을 돌파한 세 편의 작품 중 두 편이 애니메이션이다. 200만 돌파 작품 '소울'과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유일하다. 이같은 바람을 애니메이션으로 손 꼽히는 디즈니·픽사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6월 개봉하는 '루카'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해변 마을에서 두 친구 루카와 알베르토가 바다 괴물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아슬아슬한 모험과 함께 잊지 못할 최고의 여름을 보내는 어드벤처다. '루카'의 엔리코 카사로사 감독은 데뷔작 '라 루나'로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감독이다.

엔리코 카라로사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겼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루카'에서 어린 시절 받았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평이다. 엔리코 카사로사 감독은 유년 시절 여름날을 서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서 영감받은 것들을 비주얼로 펼쳐냈다.

디즈니·픽사는 1995년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3D의 장을 열고 거듭된 기술 발전으로 현재 3D 애니메이션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번 '루카'는 2D 요소를 컴퓨터로 렌더링하는 작업을 거친 후 3D로 가져와 기존 디즈니·픽사 작품들과 차별화를 뒀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강세를 보여왔다. '겨울왕국'이 애니메이션 최초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겨울왕국2'는 1374만 4792명을 동원하며 역대 애니메이션 관객수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외에도 '코코'는 351만, '인사이드 아웃'은 496만, '주토피아', 470만, '토이스토리' 시리즈도 꾸준히 100만 관객을 넘겨왔다.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들만 즐기는 작품이 아닌, 어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완성도로 마니아층을 형성,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흥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쌓았다. 이같은 이유로 '루카' 한국 관객들이 흥행에 호의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튜디오 지브리도 동시기에 신작을 내놓는다. '아야와 마녀'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6년 만의 신작이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1985년 설립돼 디즈니로 대표되던 애니메이션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미래소년 코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모노노케 히메' 등을 거쳐 2001년에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무려 3500억원에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복사기 임대

CCTV 카메라
판매 및 설치



컴퓨터 조립 및
프로그램 판매



잉크빠이스

- 문의전화 -
2439-3692
4234-0057

§ 바디케어

힐링 전신 피로 쫙 마사지
힐링 전신(부분) 통증 및 순환관리
출산 전.후 스트레스 쫙 마사지

§ 스킨케어

린다 촉촉 일반케어
린다 톡톡 비타민 케어
린다 탱탱 카복시+앰플케어
린다 모공 쏙 스켈링 케어
린다 여드름 케어
린다 반짝 반짝 효과짱 필링

LINDA BEAUTY

HAIR / NAIL / FACE / BODY
FOR MEN & WOMEN

§ 린다뷰티 헤어

손상모 회복 프로그램
모낭충 두피관리 프로그램
셋팅, 매직펌, 볼륨 매직펌, 일반펌
메니큐어(손상 모발 회복)
염색



상담예약 : 2228-7167, 3034-2131 / 오전 8:00 ~ 오후 9:00 영업

구글지도 & WAZE 에 [LINDA BEAUTY] 라고 치고 오세요. 16calle 3-54 Z.14

달하는 흥행 수입을 올렸다. 이 기록은 지난해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등장하기 전까지 19년 동안 역대 흥행 1위를 지켜왔다. 이후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의 포뇨', '바람이 분다' 등을 제작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아야와 마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기획했고, 그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가 연출을 맡았다. '아야와 마녀'는 지브리 작품 최초로 제73회 칸 영화제 오피셜 셀렉션에 공식 초청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3D CG로 제작되는 스튜디오 지브리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동안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서정적인 작화였다. 이미 3D CG에 이미 익숙한 관객들에게 스튜디오 지브리만의 3D 차별점을 어떻게 녹여냈을지가 관객들의 평가를 좌지우지 할 것으로 보인다.

'놀면 뭐하니'가 또..5주 연속 화제성 1위 'MSG 워너비 TOP8 본격 대결'

MBC '놀면 뭐하니?'가 5주 연속 토요일 비드라마 TV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

TV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놀면 뭐하니?'가 5월 2주 토요일 비드라마 부문에서 25.6%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MSG워너비' TOP8의 경연 연습과 개별 면담 과정이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며 비드라마 전체 3위, 뉴스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놀면 뭐하니?'는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 10%(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5월 2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에 올라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정상을 지키고 있다. '놀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이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끝없는 변신을 이어온 유재석은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함과 함께 지난 13일 열린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대상, '놀면 뭐하니?'는 예능 작품상을 수상해 겹경사를 맞이했다.

유야호(유재석)가 제작 중인 MSG워너비 TOP8이 두 팀으로 나뉘어 본격 대결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2일 방송에서는 최종 경연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상동기'의 '체념'과 'M.O.M'의 '만약에' 그리고 단체곡 '상상더하기' 무대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등이 5월 2주 TV화제성 비드라마 부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MBC가 비드라마 부문 방송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자친구, 6년 활동 끝에 각자의 길 쏘스뮤직과 계약 종료

걸그룹 여자친구가 쏘스뮤직과 전속계약 종료 소식을 전했다.

18일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여자친구와의 전속 계약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됩니다"라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여자친구와 당사는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자의 길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라며 "짧지 않은 시간동안 쏘스뮤직과 함께해준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간 여자친구를 사랑해 주신 BUDDY를 비롯한 모든 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 멤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여자친구는 지난 2015년 '유리구슬 (Glass Bead)'로 데뷔했다.

명 진 정 밀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마이깡 몰드 제작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마카지,패턴지,밑종이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각종 바늘 판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HONORS Academy

18 Ave."B"0-34 Zona 15, Vista Hermosa II
Guatemala, Guatemala, C.A.
Tel: 2369-1094 Cel: 4828-0325

여러 학부모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속에 이번 여름에도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맞이합니다. 접수를 시작하며, 원활한 수업 준비를 위해 조금 서둘러 접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 _ 업 _ 안 _ 내

☞**수업시간 - 월요일~목요일-오전 9:30 ~ 12:30(6/14~7/29 총7주)**

2nd-8th : 영어(단어,문법,독해,북클럽 등 포괄적인 수업), 수학(개인맞춤형)

☞**수업시간 - 월요일~목요일-오후 2:30 ~ 5:30(6/14~7/29 총7주)**

8th-10th : Pre-SAT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수업시간 - 월요일~목요일-오후2:30 ~ 5:30(6/14~7/29 총7주)**

10th-12th : **SAT** 시간으로각 과목 70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수업입니다.

 # 학원 버스는 쏘나 9, 10, 13, 14, 15 지역만 운행 됩니다.



저희 HONORS ACADEMY는 유익하고 보람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 장터 입니다

자전거 삽니다
10세남자아이 자전거와
8세남자아이 자전거
4067-7522

현 운영중이고 모든 infra를
갖춘 Logistics 회사 인수하실
젊은 분 Tel: 3000-2511

2018년형 CX-5(Full option)
45,000km 운행,아헨시아
$22,000 - 가격네고가능
Tel) 5741-2255

평판 휴징 프레스 판매합니다

Q 4,000

5691- 5588

아파트 렌트 - ZONA 7
Di Fiori Edif.Margarita
방 3개, 주차장 2개, 가전제품
일체 포함 Tel: 4841-3687

현대 베라크루즈 2012년
82,000k,은색, Q115,000
마즈다 CX-9 2016년
28,000k,갈색,Q165,000
Agencia / 5018-3200

아파트 세놉니다 zona 7
Portico 방1, 살림일체 완비
Q3,500
4067-7522

서블리메이션용 프레스&프린터
팝니다.
상태최상(20회미만 사용)
WhatsApp: 5433-4661

AUDI 2015년식 , Q7, Black

5만KM 미만 , $2만불

Tel: 5167—1786

소나 14 Almacen Verite
인수 하실분 찾읍니다.
(시설물 인수만도 가능함)
Tel : 5717-8099.

소나14 아파트 새 아파트 임대
방3개, 주차장 2대, 보데가 1개
월세 $1,000(관리비포함)
tel:5312-1159

자동차 혼다 city 2015
27.000km
상태양호 $9.000
5525-4280

늘봄 식당 양도(식당,정육점)
대형 수족관 완비(활어회)
살림 가능 집세 저렴합니다.
5525-4280

ZONA14 옷 가게 양도합니다
최고의 상권. 최적의 조건. 대형
매장. 먼저 본 사람이 임자.
tel.4126-8784

HONDA CRV , 2015년식 ,
AGENCIA, GREY , 가죽 시트
56,000K, $16,000 네고가능
오토 tel: 5784-3206

Zona 1 Pueblito 1층 가게
양도합니다.

tel:3005-9978

pueblito 매장 세 놉니다.
싼 월세, 작은 가게.
단일품목에 적합.
tel:4676-7100

HONDA HR-V 2017년식
AGENCIA 점검 차량
WHITE, 32,000KM
$17,000 / tel:5710-9652

Z.15 VH2 집 (사무실용 가능)
렌트. 방 3 화장실 4,거실3,
주차9대, $1800 (IVA 포함)
tel:5319-3234

pueblito 구관에 위치한
매장양도합니다
월세 저렴합니다.
tel:3116-2657

**교민장터에 기재되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구 인 / 구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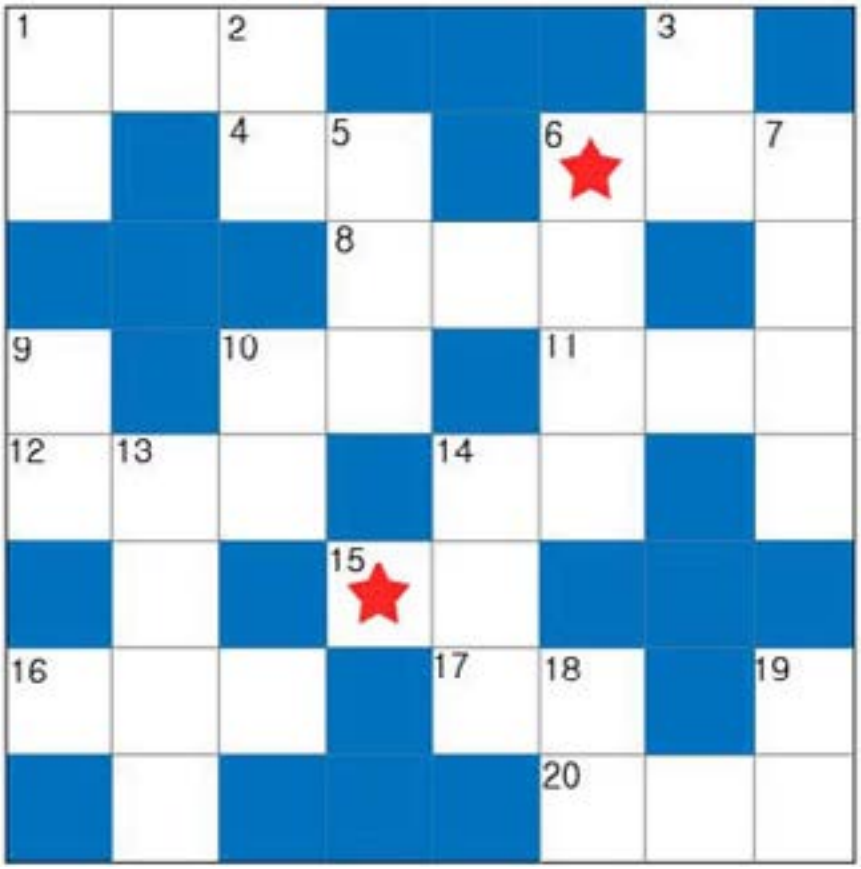
Zona 2 de Mixco에 위치한
봉제공장
라인 관리자 구합니다.
연락처: 5999-5390

mariposa
매니저 구함.
4152-6600, 5903-1891

INT, S.A.
직원모집
영업/생산관리직
49페이지 참조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날 말 퀴 즈



지난 답



속담 : 증◯살◯

■ 가로열쇠

1.상대편의 눈에 띄는 일
4.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온 사람
6.한꺼번에 겹쳐 치르는 세 가지 고통
8.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겪는 고통
10.일이 없어 한가로운 시간
11.어떤 일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12.신라의 옛 이름
14.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15.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음
16.경기, 경연 따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명부
17.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짓이 없는 참된 말
20.앞으로 얼마간. 잠시 동안

■ 세로열쇠

1.두 눈두덩 위에 가로로 모여 난 짧은 털
2.어떠한 곳이나 일정한 구역의 안
3.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5.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
6.유비가 제갈량의 초옥으로 세 번 찾아감
7.말라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
9.칠판에 분필로 글을 씀
10.입고 있는 옷 이외에 여유가 있는 남은 옷
13.연극이나 영화 따위의 마지막 장면
14.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
18.어떤 일을 맡음
19.일반 사람들 사이

서 녀 전

"누가 괴롭혔다는 거야? 그냥 귤 좀 까라고 시킨 것뿐이라고."

여란이 배를 앞으로 내밀며 입을 삐죽였다.

"하인들이 다 죽었니? 주인한테 귤을 까라고 하게?! 네 몸종인 금귀는 뒀다 뭐해?!"

화란이 커다랗고 예쁜 눈을 부라리자 옆에서 비웃고 있던 계집종 서넛이 고개를 숙이며 한쪽으로 찌그러졌다.

"여섯째가 귤을 까는 걸 보고도 너희들은 이미 죽어 버려서 말릴 수도 없었지?! 주인을 보면서 비웃는 종년이라니 참 대단하구나. 내일 할머님께 말씀드려 집으로 돌려보내 줄테니 어디 온종일 비웃어 봐!"

화란이 계집종들을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다.

여란이 바로 반발하며 언니의 소맷자락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큰언니도 내 사람 괴롭히지마. 어머니한테 이를 거야! 언니가 이랑 소생의 바보 편을 드느라 친동생을 괴롭힌다고 말이야!"

"가서 이르렴! 그리고 이랑 소생이 뭐야. 아버지께서 명란이를 안아다 어머니 처소에 데려다 놓으셨으니 우린 친자매인거야! 한번만 더 이랑 소생이니 뭐니 허튼소리 했다가는 아버지께 매질을 당할걸!"

화란이 검지로 여란의 이마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여란은 화가 잔뜩 났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명란은 고개를 숙인 채 바보인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란과 여란은 동복 자매긴 했지만 생김새는 전혀 달랐다. 화란은 성굉을 닮아 미모가 빼어났고, 눈에서 재기가 넘쳐흘렀다. 반면 여란은 왕씨를 닮아 얼굴이 동그랗고 생김새가 단정했다. 자색은 평범한 편이었지만 다 자라면 단아한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조물주는 이 동부동모 자매를 외모와 재능뿐만 아니라 부모의 총애에 있어서도 차별했다.

동생은 모든 면에서 언니보다 못했다. 명란은 여란의 심리적 불균형 상태가 더이상 심각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사실 왕씨 곁에서 생활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화란과 장백은 진작부터 자기 처소를 갖고 있었고, 장동은 아직 침을 흘리는 아이였다. 명란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오직 여란 뿐이었다.

여란의 됨됨이가 나쁜것은 아니었다. 그저 과시하길 좋아하고, 매일 남들에게 떠받들어지길 바랄뿐이었다. 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와 오빠는 건드릴수 없었고, 임이랑 소생의 오빠와 언니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서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동생 장동은 건드려 봐야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 제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건 하나 남은 재수없는 명란뿐이었다.

그때마다 화란은 마치 제천대성이라도 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정의를 구현하려했다. 화란이 명란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란이 오만방자하게 구는 꼴은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랑받는 장녀로, 성부에서 세어른 다음으로 권위가 높았다. 동생을 꾸짖고, 하인을 벌하는 것은 쉽고도 당연한 일이었다.

명란은 속으로 이 예쁘고 위엄있는 큰언니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었다. 화란은 진정한 팔망미인으로 외모나 집안, 기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다. 명란은 진심으로 큰언니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처럼 행복하고 자부심 넘치길 바랐다.

명란은 요즘 매일아침 어멈에게 안겨 왕씨 등과 함께 노대부인에게 문안을 하러갔다. 그전에는 각 처소의 첩실들이 먼저 왕씨에게 문안했다. 임이랑의 문안간격은 아주 규칙적이었다. 대략 사흘문안, 이틀 휴가였다. 이유는 만능 핑계인 '몸이 안 좋다'는 것이었다.

임이랑은 전날 밤 성굉이 자신의 처소를 찾았을때는 허리를 짚으며 몸이 힘들다고 했고, 성굉이 찾지 않았을 때는 가슴을 짚으며 마음이 힘들다고 했다. 왕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서 녀 전

씨는 임이랑이 문안을 올때마다 그 반반한 낯짝을 찢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기 위해 한참 동안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것은 자기 수양에 엄청난 도전이었다.

반면 명란은 대여섯살에 불과했고, 총애를 받는 친모도 없었다. 나이도 어린데다 멍청해서 왕씨로서는 명란을 구박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특별히 신경써서 돌볼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여란과 똑같이 먹고 잤다. 하지만 세심한 사람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끼니마다 차려진 음식은 모두 여란이 좋아하는 것이었고, 명란은 그저 따라서 먹을 뿐 반찬 투정은 할 수 없었다. 여란의 옷은 모두 새것이었고, 명란은 남는 것을 입었다. 비록 열의 아홉은 새것이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간식이 있으면 당연히 여란에게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명란에게 주었다. 금이나 은, 옥으로 만든 쇄나 련같은 장신구를 명란은 구경도 못 했지만, 외출을 할 때면 왕씨가 목과 머리에 그런 것 들을 걸어 주기도 했다.

명란은 멍청한 척을 할 때는 확실히 멍청한 척을 하고, 고자질을 해야 할 때는 확실히 고자질을 하기로 자신의 노선을 정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 기댈곳 하나 없는 서녀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거들떠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명란을 돌보는 어멈은 게으르고 덜렁거리는 사람이었다. 이쪽에 주어야 할 걸 저쪽에 주었고, 심부름도 한 번에 가는 법이 없어 매번 입을 내밀며 싫은 티를 냈다. 계집종들도 똑같이 게으르고 무능력했다. 그리고 자주 명란에게 다 들리도록 귓속말을 했다.

"이거 하랬다, 저거 하랬다 끝이 없어. 정말 짜증나." 라든가 "꼴에 주인 행세는, 자기가 정말 귀한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아나봐. 이랑 소생 주제에.",

"얼른 끝내자. 쟤 시중드는 거 짜증나." 같은 말이었다.

명란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못들은 척하던 대로 종들을 부렸다. 아직까진 왕씨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한 성굉이 수시로 명란을 보러왔기 때문에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될 일이었다.

"밤에 목이 말랐는데 어멈이 물을 안 줬어요..... 지난번에 해당로를 주셨다고요? 저는 구경도 못 한걸요..... 할머님께서 주신 간식이요? 어멈이 자기 손자가 좋아한다고 가져갔어요..... 어멈이 한가해지면 그때 제옷에 난 구멍을 꿰매 준다고 했어요." 라고 말이다.

그러면 성굉의 낯빛이 바로 어두워졌고, 왕씨 역시 난처해서 어쩔줄 몰라 했다. 요즘 화란의 계례에 정신이 팔려 있는 왕씨가 명란을 들여다볼 틈이 어디 있겠는가. 화가 난 왕씨는 자신의 체면을 깎아먹은 계집종과 어멈들을 전부 벌했다. 처음에는 하인들이 불복하며 하던대로 명란을 골탕 먹였지만, 명란도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고자질을 했다. 몇 번 그렇게 하자 결국 하인들은 온순해졌고, 명란도 생활하는 게 편해졌다.

사실 고자질은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다. 현대의 직장이나 고대의 성부나 마찬가지였다. 고자질을 잘하면 생활이 편해지고, 잘못하면 괴로워졌다. 여기에는 요령이 필요했다.

첫째, 고자질 대상이 확실해야 한다. 명란은 처음부터 왕씨가 자신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르되 죽이지만 않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성굉은 위이랑의 좋은 점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고, 젊은 나이에 간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 명란의 고자질 대상은 성굉이 되어야 했다.

둘째, 고자질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명란은 계집종과 어멈만 고자질할 뿐, 왕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왕씨가 이런거 저런거를 주는데 하인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농간을 부렸다고 말했다. 이러면 왕씨의 귀에 얘기가 들어가도 괜찮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보인 척을 하는 것이다. 명란은 깨어나서부터 줄곧 바보였다. 말도 버벅대고, 반응도 굼떴다. 계략 따위 없는 바보 같은 모습이 오히려 안전했다.



수녀들에게 딱 맞는 신발

잠시 후 한 수녀가 들어오더니
주섬주섬 신발 다섯 켤레를 쭉 늘어놓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 "이 신발은
너무 무겁고 이 신발은 너무 잘 미끄러져요.
이 신발은 또 너무 약해서 금방 닳고..."
수녀는 다섯 켤레의 단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모든 단점을 보완한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수녀들은 많이 걷고 오래 서 있어야 하니
편하면서 가볍고 견고한 신발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여러 구두업자가 왔다가
수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두손 들고 나갔다는 말도 들렸다.

- 아지오의《꿈꾸는 구둣방》중에서 -

* 사람마다 신발이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 전혀 다른 신발을 신습니다.
군인은 군화를, 등산가는 등산화를 택합니다.
많이 걷고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수녀들의 신발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딱 맞는 신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장인이 흔치 않습니다.
신발 하나가 그럴진대 각 사람에 맞는
사랑, 치유, 교육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잘 맞춰야 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오늘의 운세



차분한 마음이 좋은 만남을 주선한다. 급히 서두르지 말도록. 72년생 김씨와 다툴수 있으니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면 양호하다. 60년생 계약은 미루고 주변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눈길을 주라. 꽃을 따려다 뿌리까지 뽑을 수 있다. 빌려준 돈이 회수된다.



비오는 날 처마밑에 잠시 쉬는 형국이니 멈춤은 새로운 출발이다. 73년생 남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오니 미루어 온 일들이 빨리 해결된다. 61년생 금전으로 사소한 다툼이 있지만 손해는 없다. 건강도 생각하라. 아래 사람이 투정하지만 윗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듣는다.



바람이 멈추고 태양이 솟으니 답답했던 일이 끝이 보인다. 74년생 부부,연인 사이에 훈훈한 기류가 돌고 서로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기회. 62년생 잠시 우울할 수 있지만 궁금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50년생 기차여행은 삼가고 가까운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의 견식이 넓어진다. 75년생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 주는 법. 만들기 나름이다. 63년생 동창회에서 소식이 온다. 모처럼 나가니 기쁨이 있다. 51년생 드디어 결심하고 학원 문을 두들기는 때이니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능히 실력이 있는 분이나 물샐 틈의 경계도 늦추지 말라. 76년생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밀치고 앞에 나서니 질시 받는다. 64년생 친했던 친구가 나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린다. 52년생 비록 상업중이라고 해도 확장위주의 계획보다는 내실을 기하라.



의기소침하여 두리번거리며 살길을 찾다가 길을 잃는다. 77년생 부부,연인관계에서 헛물 키고 실망할 때. 더 기다려줘라. 65년생 주관이 없이 남들의 소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손해만 본다. 53년생 신경통이 심하다. 평소에 체조라도 하며 몸을 잘 풀도록.



자꾸 자신을 밖으로 알리려 노력하고 외모에 신경 쓰니 헛고생이다. 78년생 외모에 신경만쓰지 말고 머리에 양식을 채워라. 지혜가 최고. 66년생 하는 일이 속은 비었고 겉모양 갖추기에 정신없다. 실리 추구. 54년생 사업자는 하청업체의 상황을 악용하지 말라. 사업 예절이 필요.



빚 보증 서준 것이 잘못되어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79년생 새로운 경력을 쌓아 보려하나 순탄치 않다. 67년생 친구가 보증 서 달라고 찾아오면 확실히 거절하라. ㄱ성조심. 55년생 자기의 위치, 처지를 제대로 파악, 분수를 지키는 곳이 유리하다.



재물은 들어오나 낭비가 심하다. 저축의 지혜가 필요하다. 노총각, 노처녀는 결혼운이 들어왔다. 과다한 혼례 비용이 염려된다. 알뜰정신. 80년생 친구와 유원지에 놀러가 흥청망청. 들뜬 마음 절제 필요. 56년생 모임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추대하여 회장이 될 운이다.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니 신중하라. 학생은 전학 문제로 고민이 있으나 잘 해결된다. 69년생 관절에 이상이 있어 입원할 수 있으나 곧 회복한다. 57년생 직업의 변동이 있으면 함께 일하는 사람 중 떠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개개인마다 행동이나 말을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게된다. 미혼자는 혼담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 양다리 걸치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라. 82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 잘못하면 구설이 따른다. 58년생 사소한 고집으로부부 불화생기니 주의하라.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 주의하라.



매사가 지체되고 반복되나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 뜻을 이루어 성공한다. 결혼을 앞둔 경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지체된다. 59년생 성격차이로 부부 불화생겨 냉전상태가 오래가니 주의하라. 사업이 고전이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지만 지체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스페인어 한 마디

agilizar un servicio, apresurar un servicio

서비스를 원활히 하다 * 신속히 하다

Para aumentar el número de clientes, hay que agilizar el servicio y mejorar los precios.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해선 서비스 속도와 가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legar, pretextar **주장하다**

El abogado alegó problemas mentales de su cliente en el juicio.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를 주장하였다.

유 머

에효~서러워라!

고령의 할머니가 어디다 전화를 거시는지 수화기를 들고 쪽지에 적힌 번호를 수시로 봐가며 다이얼을 하나하나 누르고 있었다.

누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다이얼이 늦었으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라는 아가씨의 목소리소가 들렸다.

그러자 이 할머니, 수화기에 바짝 입을 대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이봐요 색씨, 그러지 말고 좀 연결해 주시구랴! 늙은이가 빨리 못 눌러서 그래. 얼른 좀 연결해줘!!'

협박 편지

정말 장난 잘 치고, 말썽장이인 한 꼬마가 있었다. 그 꼬마의 소원은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아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꼬마는 예수님에게 편지를 썼다.

'예수님, 저는 예쁘고 착한 아이에요. 저 같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제게도 당연히 선물 하나 주시겠죠?'

편지를 쓴 꼬마는 곰곰히 생각 하더니 편지지를 찢고 다시 썼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정말 착한 아이래요. 저 같은 아이한테 선물 주신다면서요?'

그래도 좀 양심에 찔려서일까? 다시쓴 편지를 구겨 버리고 다시 썼다

'예수님, 저 장난 잘 치고 말썽장이인거 알아요. 착한 애들 선물 다주고 남은 거 하나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절래절래 고개를 흔들던 꼬마 굳은 결심을 한듯 밖으로 나가더니 자그마한 성모마리아상을 들고와 끈으로 묶어놓고는....

'당신 엄마 나한테 있다. 선물 안 주면 알지?'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다메섹선교교회



담임목사 김기택

ZOOM을 통한 LIVE영상예배.
금요성경공부 : 오후 8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0시40분
ZOOM회의(예배) 번호
⇒ 911 918 9999
비밀번호 : 046322
21 Calle 13-15 Z.11 Col.Mariscal
전화: 2473-3968, 5511-6525

평강교회

주일 예배 : 오전 11 시
수요 예배 : 오후 8시
금요기찬예배 : 오후 8시(매월 1,3주)
토요새벽예배 : 오전 5시30분
주소 : 11Ave. 29-46 Z.12 El Bosque
전화 : 2476-5772, 4677-4399
담임목사 : 최 유 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17Ave 28-92 Zona 12
교회 : 2293-2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상돈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37ave. 3-36 Z.7 Col.el rodeo
교회: 2433-4533/담임목사:4768-5454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병성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0 Ave. 9-41 Z.9
전화 : 2362-8565, 5176-3677

예배동영상 시청을 QR 코드로... QR사용법

휴대폰의 카메라를 QR 코드에 갖다 댄다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면 클릭한다
만약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지 않으면
QR코드스캔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QR 코드스캔앱을 실행해 화면에 갖다 댄 후
메세지가 나오면 클릭!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박필종

BIBLE TIME과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묵상

주일예배 : 주일오전 10시30분(방송예배)
새벽예배 : 월-토 6:00(방송예배)
주소 : 18Calle 5-92 Col.MARISCAL Z.11
교회 : 2474-4551 / 목사 : 5705-6646

예배 안내(유투브에서 검색하세요.)

주일예배 : 방송시간 오전 10:30
희망찬 새벽예배(월-토) : 방송시간 6:00

과테말라
선한목자교회

더욱 힘써 예배 합시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실업급여 중독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주 미국 물류창고에서 일할 7만5000명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평균 17달러(약 1만9300원)의 시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갑절인 15달러로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고려할 때 낮지 않은 급여다.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접종과 경기회복으로 일감이 많아지는데 일하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구인난의 원인으로 실업수당이 지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월 통과시킨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법안'은 실직한 이들에게 기존 실업수당과 별도로 매주 300달러를 9월 초까지 얹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평균 387달러의 실업수당을 받던 미국 실업자의 주당 수입은 687달러로 높아졌다. 연봉으로 치면 3만5700달러이고 소득세도 내지 않는 실속 있는 소득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일한 미국인이 벌 수 있는 연봉은 1만3000달러다. 일하지 않아도 그보다 2배가 훌쩍 넘는 수입이 생기다 보니 감염 위험이 남아 있는 일터에 복귀하려는 실업자가 많지 않다.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도 재취업을 늦추고 실업수당을 받는 게 이득이다. "실업수당이 구직 활동을 막는다는 증거가 없다"며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지난주에 "실업자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으면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만120원, 월 18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때 받는 182만 원과 불과 1만 원 차이다. 정부가 2019년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늘린 영향이다. 단기간 일한 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권고사직'시켜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종업원들도 있다고 한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이 9만4000여 명이나 된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험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수급 횟수가 많아지면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과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실업급여 중독' 현상을 앞서 경험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선진국들은 정부기관의 취업 제안을 계속 거절하는 실업자에 대해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일터 복귀를 유도한다. 한국도 코로나19 이후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 실업 대책의 부작용을 서둘러 점검할 때다.

2021년 5월 18일 [4.7] 화요일

스 도 쿠

난 이 도 : 쉬운 단계

4				8	7	5		
	3	8		2		1		4
	6				5	9		
3					1		6	5
		1		9	3	8		
8	2			4				9
		5	1				8	
1		6		5		4	9	
		3	9	6				1

난 이 도 : 어려운 단계

						2		
3	9	2		7		5		6
1				8				
8	6					7		
		9					5	8
				2				7
5		3		4		6	2	1
		6						

오늘의 스도쿠 정 답

쉬운단계정답

1	5	7	8	6	9	3	4	2
3	9	4	2	5	7	6	8	1
2	8	6	4	3	1	5	7	9
9	1	3	6	4	5	7	2	8
7	4	8	3	9	2	1	5	6
5	6	2	1	7	8	4	9	3
8	3	9	5	1	4	2	6	7
4	7	1	9	2	6	8	3	5
6	2	5	7	8	3	9	1	4

어려운단계정답

5	9	4	1	3	8	6	2	7
1	2	9	7	4	6	3	8	5
7	3	8	5	2	6	9	1	4
8	5	1	2	6	7	4	3	9
3	6	6	8	1	4	7	5	2
2	4	7	3	9	5	1	6	8
9	7	3	6	8	2	5	4	1
6	8	5	4	7	1	2	9	3
4	1	2	9	5	3	8	7	6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 오오이팔 - 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경원 공식 에이전시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원 콤퓨레셔 오일이 2020년 12월 20일 부로 고온에 더 강하고
윤활 작용이 뛰어난 오일로 변경되었으며 명칭은 AIRLUBE SUPER입니다.
특별 가격은 US$ 150.^{00} 이며 공식 에이전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에이전시가 아닌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정품이 아닐수 있으니 구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5월 12일 미국냉동 컨테이너 입하

보 물 창 고

단체 김 주문
받습니다.



미국냉동

이천쌀 외 잡곡류 일체
마카롱. 요쿠르트. 호빵. 곶감
쟈스민차. 그린티. 다이어트티
광천김. 뻥튀기. 쌀과자. 오란다. 생강전병
양념장어. 은갈치. 도미살어묵. 바지락살
물오징어. 통고등어. 동태. 감자수제비. 청국장











한국냉동

삼육검은콩두유. 연세딸기우유. 연세바나나우유 (24팩입)
빙그레 바나나우유. 빙그레 딸기우유, 서울흰우유. 엔요. 베지밀 A
메밀전병만두. 김말이. 떡갈비. 고메함박스테이크. 돈카츠. 핫도그
비비고수제고기만두. 군교자. 새우만두. 찰보리감자만두. 군만두
병천찰순대. 병천고추순대. 너른골찰순대. 동태전
떡갈비. 김말이. 훨터치 소시지. 새참바. 고메중화짬뽕

배달 직통 번호 5318-0169 카톡 주문 가능

배달 직통 전화번호 : 2473-8255, 2473-8222, 5318-0169

Anillo Periferico 22-29 Z.11 C.C San Jorge Local 14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한글자판 및 스티커. 단체 김 주문)

MEGA MART

로데오

한국택배전문 2433
통합배달전문 9015



5월 12일 한국 신상품 대량 입하



한국택배는
안심 로데오







오징어는
역시 로데오

NEW ARRIVAL





더 빠른
배달과
더 많은 물건을
확충하여
고객님들의 니즈에
부합되는
더욱더 친절한
마켓으로
거듭나겠습니다



5월 17일까지 일반 6월7일까지 일반택배 마감입니다



한국에서 물품 배송전 리스트(물품+수량)를
과테말라 택배 담당자에게 건네지 않으시면
택배가 한국에서 원주소지로 반송조치 됩니다



본점 2433-9015
2호점 2221-5364
3호점 2367-0137

통합협력업체

아람정육점 4514-0802
마장동 3258-8320
밀베이커리 4545-4504
순풍식당 2508-5635
향이 4576-5786
진미식당 5550-1317
본가 2445-6050

통합 배달 전문



한국 택배 전문